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2025
연구보고서

제 출 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귀하

연구단체 :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소속의원 : 김남원 의원(대표의원), 송승환 의장, 이영철 의원,
서지영 의원, 백슬기 의원, 고선희 의원, 김춘수 의원,
김동혁 의원

본 연구보고서를 귀 의회로부터 의뢰받은 「교육 중심 도시농업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 계층 치유 및 6차 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11.

소르본역사논술연구소

연구진

■ 소르본역사논술연구소

연구책임자 : 이성우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이민욱 (인천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남은지 (인천대학교 교수)

■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대표의원 : 김남원 의원
소속의원 : 송승환 의원
이영철 의원
서지영 의원
백슬기 의원
고선희 의원
김춘수 의원
김동혁 의원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서구의회에 있으며,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구의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제1장 | 서 론 0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검토 14

1.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 개념정의
2.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의 유형 및 역할
3. 선행연구검토

제3장 | 도시농업 지원 제도 검토 36

1. 도시농업 지원 정책
2. 관련 법률

제4장 | 인천광역시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 54

1.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 관련 조례 현황
2. 인천광역시 추진 현황
3. 국내 치유농업 우수사례

제5장 | 사례 비교·분석 및 활성화 방안 도출 90

1. 현장 방문 및 비교 시찰
2. 현장 방문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의 방향성

제6장 | 결론 104

1. 연구의 요약
2.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표 차례

[표 2-1]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개념 및 기능 비교 ····· 15
[표 2-2] 활용 자원 기준에 따른 치유농업의 주요 유형 ····· 16
[표 2-3] 참여 대상 기준에 따른 치유농업의 주요 유형 ····· 17
[표 2-4] 운영 목적 기준에 따른 치유농업의 주요 유형 ····· 17
[표 2-5] 도시형 치유농업의 추진 방향 ····· 18
[표 2-6] 운영 주체 기준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주요 유형 ····· 19
[표 2-7] 참여 대상 기준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주요 유형 ····· 19
[표 2-8] 운영 목적 기준에 따른 사회적 농업의 주요 유형 ····· 20
[표 2-9] 사회적농업의 발전 방향 ····· 20
[표 2-10] 선행연구 주요내용 1 ····· 30
[표 2-11] 선행연구 주요내용 2 ····· 31
[표 3-1] 도시농업 · 치유농업 · 사회적농업의 정책 기능별 분류 ····· 36
[표 3-2] 도시농업 · 치유농업 · 사회적농업의 대상별 분류 ····· 37
[표 3-3] 2023-2025년 치유농업 관련 주요 지원사업 현황 ····· 43
[표 3-4] 2023~2025년 사회적농업 관련 주요 지원사업 현황 ····· 48
[표 4-1] 2024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8회기 계획 ····· 59
[표 4-2]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예술제 주요내용 ····· 65
[표 4-3]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마을농장 마을형 ····· 71
[표 4-4]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마을농장 농장형 ····· 72
[표 4-5]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마을농장 농장형 ····· 73
[표 4-6]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교육농장1 ····· 74
[표 4-7]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교육농장2 ····· 75
[표 4-8]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교육농장3 ····· 76
[표 5-1] 현장방문지별 핵심요소 ····· 99
[표6-1] 에듀팜 커리큘럼 ····· 112
[표6-2] 치유농업사 양성 단계 ····· 113

그림차례

[그림 4-1] 2023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시행 현장사진1 ····· 58
[그림 4-2] 2023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시행 현장사진2 ····· 58
[그림 4-3] 2024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사진1 ····· 60
[그림 4-4] 2024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사진2 ····· 60
[그림 4-5]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 현장사진1 ····· 61
[그림 4-6]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현장사진 ····· 62
[그림 4-7]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사진1 ····· 62
[그림 4-8] 거점형 치유농장 스마트팜 현장 사진 ····· 63
[그림 4-9] 서울특별시 보급형 치유농장 현황 ····· 64
[그림 4-10]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예술제 포스터 ····· 66
[그림 4-11]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사진 ····· 67
[그림 4-12] 춘천시 고은꽃원예치료센터 ····· 77
[그림 4-13] 춘천시 사회적농장 유기농카페 ····· 78
[그림 4-14] 춘천시 파머스가든 ····· 79
[그림 4-15] 제주 덕천곤충 영농조합법인 ····· 81
[그림 4-16] 제주 이레숲 치유농장 ····· 82
[그림 5-1]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사전답사 ····· 90
[그림 5-2]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8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91
[그림 5-3]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9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92
[그림 5-4]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10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93
[그림 5-5]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11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94
[그림 5-6]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12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95
[그림 5-7]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13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96
[그림 6-1] 서구형 치유농업 행정연계 프로세스 ····· 111
[그림 6-2] 에듀팜 설명자료 ····· 112
[그림 6-3] 6차산업 연계설명 ····· 114
[그림 6-4] 로드맵 설명 ····· 115
[그림 6-5] 거버넌스 구조설명 ····· 116

제1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도시 공간은 단순한 생활 기반을 넘어, 개인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복합적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에 심리적 불안, 관계 단절, 지역 내 고립 등과 같은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과 치유농업(Therapeutic Agriculture)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다시 잇는 회복의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농업은 단순히 식물을 재배하는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주민들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며, 생명과 순환의 가치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는 단순한 여가활동의 범주를 넘어 정서적 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적 연결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동텃밭이나 커뮤니티 정원은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기능하며,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농업을 복지, 교육, 환경, 치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확산되면서 정책적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치유농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치유농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하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농업이 단순한 생산활동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활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치유농업의 대부분은 농촌 지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도시권 내에서는 접근성과 참여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교육 기반은 미흡한 실정으로, 도시형 치유농업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하여,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중심의 도시농업은 단순히 재배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농업활동을 통해 협력과 공감, 자립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다.

청소년과 청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의 순환을 체험하고, 성취와 회복을 경험하며,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학습형 치유농업 모델은 지역 내 복지·교육·고용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실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 서구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된 도시 구조 속에서 여전히 일정 규모의 농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적 특성은 도시농업을 사회적 치유의 도구로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 유휴지, 옥상, 방치된 공터 등은 주민 참여형 치유농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험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 내 농업인들이 보유한 노하우를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결합한다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농업은 교육과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다.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 체험형 관광, 지역 축제와 연계된 부가가치 창출 등은 6차 산업과 직결되며, 지역 내 순환형 경제 구조를 형성한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을 넘어, ‘가꾸고 배우고 나누는’ 복합형 산업으로 전환될 때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매개체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도시농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농업을 정서적·사회적 회복의 수단으로 재조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한다.
둘째, 교육 중심의 치유농업 모델을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학습형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치유농업사와 지역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도시농업과 6차 산업을 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형 사회적 농업 구조를 구축한다.

결국 본 연구는 도시농업을 단순한 녹지·환경 정책의 한 형태로 보지 않고, 교육·복지·경제가 융합된 정책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인천 서구를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 생활 속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도시형 사회적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정서적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시농업이 단순한 식물재배 활동을 넘어, 주민의 정서적 회복과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교육 중심의 치유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교육적·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교육적·학술적·사회적 관점을 상호 연계하여 도시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확장하는 4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정책적 목적

정책적 목적은 치유농업이 도시 공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 서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추진할 전담 조직(도시농업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 방향은 거대한 기관 설립보다는 의회·행정·민간이 협력하는 단계적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1단계로는 서구의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근거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거점(Community Farm Hub) 모델을 제안한다.
이 거점은 기존의 소규모 텃밭, 마을 정원, 학교·복지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행정은 지원과 조정 역할, 민간은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다.

2단계로는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농업 지원 전담 부서나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단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목적은, 서구가 가진 도시적 특성과 농업 자원의 현실을 고려하여 '거점형-협력형-지속형' 도시농업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향후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2) 교육적 목적

교육적 목적은 도시농업을 단순 체험이 아닌 학습과 성장의 연속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이 개인의 심리적 회복뿐 아니라, 학습・공유・협력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회복하는 교육적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지역 기반에서 양성하고, 주민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평가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 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 에듀팜(Edu-Farm) 모델을 구상하여, 학습과 치유, 직업 체험이 순환되는 프로그램 구조를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치유농업 교육이 자격 취득 중심의 교육을 넘어, 사회적 연결과 자아 회복을 학습하는 공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한다.

3) 학술적 목적

학술적 목적은 도시농업이 주민의 정서, 관계, 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도시형 사회적농업 모델로 정립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농촌 단위의 치료・복지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도시생활권에서 치유농업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인식 변화, 재참여율, 공동체 관계 형성 정도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프로그램 설계의 질적 요인을 함께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형 치유농업의 작동 구조를
‘공간(장소)-운영자(치유농업사)-참여자(주민)-가치사슬(생산・체험・관계)’의 상호작용 체계로 해석하여, 학문적 개념을 현실의 정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학술적 목적의 본질은 단순히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이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과정 자체를 분석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4) 사회적 목적

본 연구의 사회적 목적은 도시농업을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치유와 회복의 공공적 수단으로 확립하는 것에 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경쟁 속에서 지역 내 관계망은 점차 약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주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가꾸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관계 회복의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목표다.
주민들은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며,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정서적 안정과 자기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이웃 간 신뢰 회복, 세대 간 교류,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치유농업이 공공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된다면, 복지나 보건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형 돌봄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복지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되며, 주민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회복 모델로 기능할 것이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상, 시간상, 내용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상 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내 전역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시간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로 설정한다.
이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3.3.)과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7.)을 기준으로,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전 기초정책 수립 단계의 시점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는 2023년 이후 서구의회 연구단체 활동자료, 조례안, 회의록 등 공식 문헌과 현장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참고 사례로는 춘천·강화·부산 등 타 지자체의 도시농업·치유농업 사례(2022~2025)를 비교·분석에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5년 연구용역 기간을 중심으로 하되, 2026년 이후 서구형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모델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 단계로서 의미를 갖는다.

3) 내용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상 범위는 도시농업의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치유와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인천 서구는 아직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전문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조례 제정과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해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농업을 단순한 경작이나 체험활동이 아닌 정서적 안정, 자존감 회복, 관계 회복의 매개로서 재해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교육적 체계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는다.

연구 내용은 도시농업의 교육적·치유적 기능을 규명하고, 이를 사회적 농업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농업활동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연결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농업을 통해 형성되는 활동이 단순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내 농가, 청년, 사회적 기업과 연계되어 가공, 체험, 관광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6차 산업형 연계 구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서구의 도시적 특성과 농업적 자원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화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농업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을 치유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탐색한다. 더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나 주민참여형 지원사업을 설계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공동체형 치유농업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농업을 복지, 교육, 경제가 융합된 통합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서구형 치유농업 정책의 실천적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문헌조사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관련 법령, 정책자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구용역 결과물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치유농업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 「도시농업 육성종합계획」, 「사회적농업 활성화 종합대책」 등 주요 정책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도시농업의 제도적 흐름과 치유농업의 정책적 확산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함께 춘천, 강화, 부산, 경기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인천 서구의 여건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이 교육·복지·환경·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체계화하고, 향후 치유농업 기반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현장방문 조사는 연구회의 연중 활동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춘천 고은꽃원예치료센터, 강화 미래치유농업센터, 부산 철마도시농업공원, 인천 신록팜샐러드카페 등을 직접 방문하였다. 각 현장에서 치유농업의 실제 운영 방식, 참여자 구성, 공간 활용, 프로그램 절차 등을 관찰·기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형 치유농업 모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을 도출하였다.
특히 도시농업이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형성의 매개로 작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회 활동기록, 회의자료, 조례 제·개정안, 회의록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서구 도시농업의 현황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적 논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번 연구성과가 향후 의정활동 및 조례 개정의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적 접근보다는 내용분석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도시농업이 치유적·교육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 운영 지속성, 지역 연계성을 주요 분석항목으로 설정하고, 서구의 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 개념정의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농업은 각각 다른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세 가지 모두 농업을 단순한 생산하는 행위가 아닌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실천으로 바라본다는 공통된 지점을 갖는다. 이들은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도시와 농촌, 개인과 공동체, 생산과 치유의 경계를 넘나드는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먼저 도시농업은 도시라는 인공적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을 말하지만, 단순하게 ‘도시 속의 농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도시농업은 도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흙을 만지고 식물을 기르며,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생태적 리듬과 공동체적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다. 도시의 공원, 옥상, 학교, 유휴공간 등이 새로운 농업의 장으로 변하며, 농업은 도시 생태계의 회복과 시민의 환경 감수성 형성에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다. 따라서 도시농업은 개인의 취미활동을 넘어, 도시공동체의 회복과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운동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이 지니고 있는 생명 순환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람은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의 흐름과 조우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한다. 치유농업은 단순한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 스스로를 되살리는 회복의 과정이다.

이때 농업은 의료나 복지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독립적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치유농업은 농업의 가치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정서적 치유에 기여하는 확장된 농의 형태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매개로 사회적 약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실천 활동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 노인, 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가 농업활동을 통해 노동의 존엄을 되찾고 사회적 관계망 속으로 다시 편입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회적농업의 핵심은 생산 그 자체보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에 있다. 농장은 생산의 장소이면서 교육과 돌봄, 고용과 복지의 현장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새로운 연대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결국 사회적농업은 사람이 사람을 재배하고, 관계를 수확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농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농업은 공간의 회복, 치유농업은 인간의 회복, 사회적농업은 관계의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농업의 사회적 의미를 확장시킨다.

농업이 더 이상 농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시와 사회 전반에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조직하는 생태적·사회문화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 개념은 하나의 통합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인간과 사회, 환경이 상호 회복하고 공생하는 새로운 농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개념적 틀이라 할 수 있다.

[표 2-1]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개념 및 기능 비교

구분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공통점 및 융합 가능성
주요 목적	식량자원 확보, 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정서·심리 안정, 건강증진	사회적 약자 지원, 고용·돌봄·복지 연계, 공동체 재생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핵심 대상	주민, 학생, 지역공동체	취약계층, 환자, 스트레스 경험자, 일반인	장애인, 노인, 이주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참여 기반
주요 자원	도시 유휴공간, 옥상, 공공텃밭	농장, 원예센터, 교육농장	사회적기업형 농장, 복지시설 연계 농장, 협동조합형 농장	도시와 농촌의 자원을 연계한 복합적 활용
활동 특성	참여형·자율형	체험형·치유형·프로그램형	돌봄형·협동형·지역순환형	교육·치유·공동체의 통합 실천 가능
기대 효과	환경·교육·경제 활성화	심리·정서 회복, 사회적 통합	사회적 포용,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회복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관계망 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농촌진흥청(2022), 본 연구 재구성

2.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의 유형

○ 치유농업

치유농업은 활용 자원과 참여자 특성, 운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정책 모델 및 프로그램 설계 방향을 결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보면 치유농업은 ① 활용 자원 기준, ② 참여 대상 기준, ③ 운영 목적 기준의 세 축으로 분류된다.

1) 활용 자원 기준 분류

치유농업의 자원은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식물, 동물, 농작업, 식생활, 자연환경의 다섯 가지 자원이 중심이 되고, 각각의 자원은 참여자에게 심리적·신체적 효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원예치유형은 식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꽃·허브를 가공하면서 감각 자극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얻는 형태이다. 동물매개형은 가축 돌봄을 통해 사회성 회복과 대인관계 개선을 촉진하며, 농장체험형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인다. 식문화형은 수확한 농산물을 조리·공유하면서 관계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연환경활용형은 숲이나 하천 등 자연자원을 이용해 심리적 회복을 유도한다.

[표 2-2] 활용 자원 기준에 따른 치유농업의 주요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적용 예시
원예치유형	식물의 재배·관찰·꽃·허브·식물가공을 통한 감각자극 및 정서 안정	원예치유센터, 화훼정원 프로그램
동물매개형	가축이나 반려동물 돌봄을 통해 심리적 안정, 사회성 향상	양·토끼·미니돼지 돌봄체험
농장체험형	파종→수확→가공의 전 과정을 통해 노동과 성취를 경험	치유농장, 주말농장 프로그램
식문화형	수확물 가공·조리·공유 식사 등으로 자존감과 관계성 회복	지역 김치 담그기, 제철요리체험
자연환경활용형	숲·들판·하천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정서·심리 회복	치유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료: 농촌진흥청(20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강원도농업기술원(2024) 재구성

2) 참여 대상 기준 분류

치유농업은 참여자의 연령, 사회적 관계망, 심리적 상태 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가 달라진다. 참여 대상 기준은 치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대상군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표 2-3] 참여 대상 기준에 따른 치유농업의 주요 유형

구분	주요 대상	목적 및 효과
아동·청소년형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경험자	자기표현력 향상, 정서 안정
노인형	독거노인, 치매 초기 노인	인지 기능 유지, 사회적 소속감
장애인형	지적·자폐·발달장애인	감각 자극, 사회 적응력 향상
청년형	사회적 고립 청년, 구직자	자립 역량 강화, 사회 참여 촉진
일반주민형	스트레스, 번아웃 경험자	관계 회복, 심리 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농촌진흥청(2022), 본 연구 재구성

3) 운영 목적 기준 분류

운영 목적에 따라 치유농업은 교육형, 사회적 치유형, 임상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운영 주체와 목적, 지원 범위가 상이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선택적 추진이 필요하다.

[표 2-4] 운영 목적 기준에 따른 치유농업의 주요 유형

구분	내용	담당 주체
교육형	생태·환경·정서 교육 중심	학교, 평생학습기관
사회적 치유형	공동체 회복·돌봄 중심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임상형	치료·재활 중심	의료기관, 전문 치유농업사

자료: 농촌진흥청(2023), 본 연구 재구성

4) 도시형 치유농업의 필요성과 방향성

대부분의 치유농업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실제로 정서적 피로와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집단은 주민이다. 따라서 치유농업의 도시화는 생활권 기반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주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표 2-5] 도시형 치유농업의 추진 방향

구분	주요 대상
공간적 측면	유휴부지, 옥상정원, 공공텃밭 활용
운영적 측면	치유농업사와 지역농업인의 협업 구조
사회적 측면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교육적 측면	학교·복지기관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정책적 측면	조례 기반 지원체계 마련 및 평가제 도입

자료: 본 연구 재구성

○ 사회적농업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지역 공동체를 포용하고, 돌봄・고용・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하는 사회적 실천 활동이다.
그 유형은 운영 주체, 참여 대상, 운영 목적의 세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정책 지원 방향과 사업모델 개발의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사회적농업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지역사회 재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형별 특징에 따라 지역 여건과 사회적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1) 운영 주체 기준 분류

사회적농업은 사업의 추진 주체에 따라 농장주도형, 사회적경제조직형, 공공협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 사업 구조와 목적, 지속 가능성의 범위가 달라진다.

[표 2-6] 운영 주체 기준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주요 유형

구분	내용	대표 주체	적용 예시
농장주도형	개별 농장에서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체험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장, 가족농장	농장형 돌봄체험, 자활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형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중심이 되어 고용과 복지를 연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장애인 고용농장, 사회적경제 연계형 농장
공공협력형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복지 및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추진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복지센터 연계 농장, 공공형 사회농업 시범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본 연구 재구성

2) 참여 대상 기준 분류

사회적 농업의 참여자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개인부터 지역 주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성된다. 참여 대상의 특성에 따라 돌봄형, 자립지원형, 통합참여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은 사회적 기능과 목표가 상이하다.

[표 2-7] 참여 대상 기준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주요 유형

구분	주요 대상	목적 및 효과	적용 예시
돌봄형	노인,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회복	돌봄농장, 복지시설 연계형 농장
자립지원형	청년, 경력단절자, 저소득층 등	직업훈련, 자립 역량 강화	청년창업농장, 직업재활형 농장
통합참여형	지역 주민, 교육기관, 복지단체 등 다양한 주체	공동체 형성, 사회적 통합	마을공동체형 농장, 교육·복지 연계형 농장

자료: 농촌진흥청(2023), 농림축산식품부(2022), 본 연구 재구성

3) 운영 목적 기준 분류

사회적 농업은 운영 목적에 따라 복지형, 교육형, 지역재생형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은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복지·경제·문화 영역과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표 2-8] 운영 목적 기준에 따른 사회적농업의 주요 유형

구분	주요 내용	담당 주체	적용 예시
복지형	사회적 약자 돌봄, 치유 및 사회참여 지원 중심	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장애인 재활농장, 치유·돌봄형 농장
교육형	생태·사회적 감수성, 시민교육 중심	학교, 평생교육기관, 사회적기업	농촌학교, 생태교육농장
지역재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로컬경제 순환 중심	지자체,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형 농장, 지역순환경제 농장

자료: 농촌진흥청(2023), 농림축산식품부(2022), 본 연구 재구성

4) 사회적농업의 확장 방향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생산 기능을 넘어 복지·고용·교육·치유가 결합된 통합형 사회혁신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청년실업, 지역소멸 등 복합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기반 사회서비스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에는 돌봄과 치유 중심의 치유농업과 연계해, 지역기반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표 2-9] 사회적농업의 발전 방향

구분	주요 추진 방향
정책적 측면	농업·복지·고용정책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운영적 측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 운영
경제적 측면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반영한 보상체계 마련
사회적 측면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및 지역 공동체 회복 강화
교육적 측면	치유농업사·사회적농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자료: 본 연구 재구성

3.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융합 가능성과 사회적농업의 역할

○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상호 보완성

도시농업은 도시 생활 속에서 식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

한편, 치유농업은 농업자원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최근에는 사회적 돌봄과 교육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형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두 영역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의 회복” 과 “공동체의 회복” 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도시농업이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면, 치유농업은 참여와 경험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을 결합하면, 도시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 도시농업의 치유적 확장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나 취미활동이 아니라 정서 안정과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텃밭이나 공유정원은 주민이 서로 협력하며 공간을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리적 안정, 자존감 회복, 관계 형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공동체의 단절이 심화된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지역 내 소통과 신뢰를 복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농업의 이러한 특성은 치유농업의 기본 원리와 일치한다.

식물을 돌보며 생명의 순환을 체험하는 행위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농업은 “생산의 농업” 에서 “회복의 농업” 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치유농업의 접근 방식을 주민의 생활 속으로 옮겨오는 핵심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도시형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의 연계 가능성

도시형 치유농업은 단순한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농업과의 연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복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접근방식이다. 사회적 농업이 도시형 치유농업에 접목되면, 도시공간에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지역 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도시형 치유농업에 사회적농업을 더하면 생산, 가공, 서비스가 연계된 6차 산업형 구조로도 확장될 수 있다. 치유농장은 단순한 체험공간이 아니라, 농산물 재배를 기반으로 한 가공 및 판매, 체험 및 교육이 융합된 복합 산업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치유농장에서 재배된 작물이 지역 내 가공시설을 통해 가공식품으로 생산 했을 때 마을기업 또는 로컬푸드 매장, 복지시설 급식 등으로 공급된다면 6차 산업의 선순환 모델이 된다. 이 구조 안에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협력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자립형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연계는 단순한 경제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함께 실현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농업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생산과 가공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주체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복지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지역 통합형 사회모델로 발전한다. 도시농업이 단순한 여가나 환경정책이 아니라 ‘일하고, 배우고, 나누는’ 사회적 경제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천 서구와 같은 도시형 지역에서는 농촌 중심의 사회적농업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고밀도형 치유농업 거점 모델이 필요하다. 소규모 농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주민 접근성이 높고, 각 농장이 가공·판매·교육 기능 중 하나를 담당하는 ‘분산형 6차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한다면, 한정된 공간에서도 지역경제 순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은 청년, 경력단절자,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일자리 구조를 형성하고, 행정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도시형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의 연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회는 치유농업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 행정은 유휴부지 제공, 인력양성,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사업이 단기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자립 가능한 사회적경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결국 도시형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의 결합은 정서적 안정, 사회적 포용, 경제적 자립이 순환되는 도시형 6차 산업 모델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이는 개인의 정서적 회복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주도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4. 치유농업·사회적농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치유농업 정책플랫폼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최인규, 2023)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정책체계의 통합과 행정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 제언을 하였음.

○ (연구목적) 부처 간 분산된 치유농업 정책을 통합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정책플랫폼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둠.

○ (분석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치유농업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 그리고 해당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 20인.

○ (분석방법) 농업·복지·보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기반, 인력양성, 산업화, 홍보 영역의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함.

○ (분석결과) 부처별 사업 간 연계 부족과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이 드러났으며, 통합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 (시사점) 치유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책 통합과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임을 확인함.

○ (활성화방안)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강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설협의체를 설치하여 정책 일관성 확보.
- 전국 단위 치유농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성과 체계적 관리 필요
- 치유농업사 및 운영자 교육제도를 정비해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공공기관과 민간농장이 협력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정보와 사례 공유

2)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분석」(홍인경 외, 2024)

연구에서는 실험분석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성인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제도화를 제언하였음.

○ (연구목적) 치유농업 활동의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대상) 서울·경기 지역의 직장인과 일반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

○ (분석방법) 8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서 안정도를 사전·사후 비교 분석함.

○ (분석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하게 낮아지고,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유대감이 상승함.

○ (시사점) 치유농업은 정신건강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지닌 비약물적 치유수단으로서 정책적 활용 가치가 높음을 확인함.

○ (활성화방안) 근거 기반 프로그램 제도화 및 지역사회 보건 연계 강화

-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표준 마련
- 보건소 및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 정례화
- 치유농업사 및 운영자 교육제도를 정비해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심리·생리 지표를 활용한 효과평가 체계를 구축해 과학적 신뢰성 확보
-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접근성 높은 치유농업 모델 확산

3) 「농장주의 사회서비스 연계 의향 분석을 통한 치유농업 확산 연구」 (김정은 외, 2024)

연구에서는 전국 치유농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결합 의향을 분석하고, 복지형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제언을 하였음.

○ (연구목적) 농장운영자의 인식과 정책지원 경험을 통해 치유농업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확산전략을 제시함.

○ (분석대상) 전국 121개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 및 종사자.

○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인식, 경제성, 정책지원 경험이 운영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함.

○ (분석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치유농업을 사회서비스와 결합할 의향이 있으며,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시사점) 농장운영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정책 인센티브 제공이 치유농업 확산의 핵심 요인임이 확인됨.

○ (활성화방안)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장 제도화와 인센티브 기반 확산

- 농장운영자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상담기법 중심 전문교육 강화
-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정·세제 혜택 부여
- 복지기관·보건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보

4)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의 융합 가능성 연구」(박정훈 외, 2024)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의 구조적 연계를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융합형 정책모델 구축을 제언하였음.

○ (연구목적) 두 영역의 공통점과 차이를 규명하고, 복지・고용・지역공동체 기능을 통합하는 융합형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대상)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의 사회적농업 및 치유농업 운영사례와 관련 정책문헌.

○ (분석방법) 문헌분석과 전문가 포럼을 병행하여 각국의 운영체계, 제도구조, 사회적 성과를 비교분석함.

○ (분석결과) 사회적농업은 포용과 고용 중심, 치유농업은 심신회복 중심의 특성을 지니며, 두 영역의 결합 시 복지적 시너지 효과가 큼을 확인함.

○ (시사점) 치유농업을 사회적농업 체계에 통합하면 정책효율성과 지속성이 동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활성화방안)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장 제도화와 인센티브 기반 확산

- 돌봄・교육・치유를 결합한 사회적 치유농장 모델 도입 및 인증체계 마련
-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
-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포용 기능을 강화
-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도입, 결과 기반 지원 추진

5) 「아동・청소년・성인의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치유농업 효과 검증」(정순진 외, 2022)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정신건강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화 방안을 제언하였음.

○ (연구목적) 치유농업이 연령대별로 정신건강 문제(우울, 불안,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청소년・청년층의 건강증진 정책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함.

○ (분석대상) 아동・청소년・성인으로 구성된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및 그 효과측정 자료.

○ (분석방법)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심리검사 및 생리지표를 활용하여 우울・불안・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생애주기별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함.

○ (분석결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후 청소년 집단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크게 감소하고,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도가 향상됨. 성인 집단에서도 유사한 개선 효과가 관찰됨.

○ (시사점) 치유농업은 청소년 및 청년층의 정신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비임상 개입수단으로, 교육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활성화방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 설계 확대

- 청소년과 청년의 심리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 세분화 운영
- 학교, 지역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치유농업 정규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도화
- 도심형 농업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유농업 활동 환경을 조성

6) 「대학생 스트레스 '치유농업'으로 날리다」(농촌진흥청, 2023)

연구에서는 대학생 스트레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심리적 완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였음.

○ (연구목적) 청년층이 겪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문제를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정신 건강 정책 내 치유농업의 활용방향을 제시함.

○ (분석대상)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텃밭 중심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집단.

○ (분석방법) 주 2회, 총 12회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전후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자기효능감 지표를 측정 및 비교함.

○ (분석결과) 스트레스 48.9%, 우울감 56.8%, 불안 36.4% 감소, 자기효능감 11.5% 증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남.

○ (시사점) 치유농업이 대학생 및 청년층의 스트레스 완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으며, 심리안정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함.

○ (활성화방안) 청년층 접근성 강화 및 도시농업 연계 확대

- 청년의 생활패턴과 심리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접근성이 높은 치유농업 기반시설 확충
- 심리·생리 지표 기반의 평가체계를 마련해 정책근거 확보 및 효과성 입증
- 청년정신건강 서비스 및 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치유농업 공식 지원사업 포함

[표 2-10] 선행연구 주요내용 1

구분	「치유농업 정책플랫폼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인규, 2023)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분석」 (홍인경 외, 2024)	「농장주의 사회서비스 연계 의향 분석을 통한 치유농업 확산 연구」 (김정은 외, 2024)
연구목적	부처 간 분산된 치유농업 정책을 통합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정책플랫폼을 설계	치유농업 활동의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 제도화 방안 도출	농장운영자의 인식과 정책지원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화 가능성 분석
분석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련 정책 및 전문가 20인	서울·경기 지역 직장인 및 일반 성인 100명	전국 121개 치유농장 운영자 및 종사자
분석방법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책기반, 인력양성, 산업화, 홍보영역 중요도·실행 가능성 평가	8주간 프로그램 전후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정서안정도 비교분석	설문조사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영향요인 검증
분석결과	부처 간 연계 부족과 행정체계 비효율성 확인, 통합 관리체계 필요성 도출	스트레스 지수 감소,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적 유대감 향상	다수의 농장주가 사회서비스 결합 의향 보유, 정책지원 요구 강함
시사점	정책 통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마련이 치유농업 지속발전의 핵심 과제	치유농업이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며 정책적 활용 가치가 높음	사회서비스형 치유농장 제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확산의 핵심 요인

[표 2-11] 선행연구 주요내용 2

구분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의 융합 가능성 연구」 (박정훈 외, 2024)	「아동·청소년·성인의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치유농업 효과 검증」 (정순진 외, 2022)	「대학생 스트레스 '치유농업'으로 날리다」 (농촌진흥청, 2023)
연구목적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의 공통점과 차이를 규명하고 융합형 발전모델 제시	연령대별 정신건강 문제 완화 효과를 검증하고 청소년·청년층 정책 활용 가능성 탐색	대학생의 스트레스·우울·불안 완화 효과를 검증하고 청년 정신건강 정책 연계 방안 제시
분석대상	네덜란드·이탈리아·한국의 사회적·치유농업 사례 및 정책문헌	아동·청소년·성인 참여자 집단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 100명
분석방법	문헌분석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한 비교연구	심리검사 및 생리지표 비교분석	주 2회, 12회기 프로그램 후 심리·생리지표 비교
분석결과	두 영역 결합 시 복지적 시너지 효과 발생 확인	청소년 집단의 스트레스·우울감 감소, 적응력 향상	스트레스 48.9%↓, 우울 56.8%↓, 불안 36.4%↓, 자기효능감 11.5%↑
시사점	사회적농업 체계 내 치유농업 통합 추진 시 정책효율성 및 지속성 강화	교육·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 필요성 확인	청년층 정신건강 증진에 실질적 효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제3장

도시농업 지원 제도 검토

제3장 도시농업 지원 제도 검토

1.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 지원 정책

1)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 정책의 기능별 분류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농업은 모두 농업을 통해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정책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각각 환경적・복지적・사회 통합적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녹지와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심신의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활용하며, 복지・보건체계와 연계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사회적농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자립을 촉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장한다.

결과적으로 세 정책은 환경, 복지, 고용,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층적 구조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통합형 농정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표 3-1]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의 정책 기능별 분류

구분	주요 기능	세부 내용	정책 방향
도시농업	환경·공동체	도시녹화, 유휴지 활용, 시민참여형 공동체 회복	도시 생태 기반 강화
치유농업	복지·건강	농업활동을 통한 신체·정신 치유, 복지서비스 연계	치유농장·전문인력 육성
사회적농업	포용·고용	사회적 약자 고용, 돌봄·교육 서비스,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사회적농장 확산 및 자립기반 구축
공통기능	지속가능·통합	생태보전, 교육, 사회통합, 지역재생	지역 맞춤형 융합정책 추진

2)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 정책의 대상별 분류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농업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여건을 반영해 설계된 다층적 참여 체계라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주로 일반 시민과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텃밭 가꾸기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한다.

치유농업은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계층, 예컨대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적농업은 돌봄과 자립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고용과 교육,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며 지역 내 포용 기능을 강화한다.
이들 정책은 대상별로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결국 농업을 매개로 시민의 참여와 복지, 자립을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평가된다.

[표 3-2]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의 대상별 분류

구분	주요 대상	세부 범주	정책 목적	지원 방식
도시농업	일반 시민, 주민 공동체	도시민, 학생, 가족 단위	시민참여 확대, 공동체 회복	공공텃밭,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	복지·건강 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군	심신 회복, 정서 안정, 사회 복귀	치유농장 프로그램, 전문 인력 지원
사회적농업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이주민 등	고용·자립 지원, 사회적 포용	사회적농장 운영, 돌봄·고용 프로그램

3) 치유농업 지원 기본계획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는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치유농업 체계 구축과 제도·인력·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둠.

- 치유농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인증제와 표준체계를 마련하여 산업 확산 촉진
- 치유농업사 자격제 및 교육체계를 통하여 전문성 강화
- 부처 협력과 데이터 행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

□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기본계획의 전략과제는 연구·개발 강화,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지원체계 확립 등의 방안으로 구성됨.**
(출처: 농촌진흥청,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 2022)

○ (과제1) 연구 및 개발 고도화

- 치유농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다양한 농업 자원의 치유 효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 대상(아동,청년,청소년,노년,장애인 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 치유 효과를 높이고, 이를 표준화된 모델로 확산시킨다.
- 연구 결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축적하여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과제2) 산업 기반 조성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도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치유농업 시설의 운영체계를 체계화한다.
-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지역 거점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화를 촉진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치유농장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 (과제3) 전문인력 양성

- 치유농업사 자격제도를 통해 현장 전문성을 확보하여, 단계별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 실습 중심의 교육농장을 운영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심화 과정을 도입한다.
- 청년층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인력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 (과제4) 제도 및 정책 지원체계 확립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인다.
- 복지・보건・교육 부처 간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통합형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 구조를 확립한다.

4) 치유농업 관련 지원사업 (2023~2025년)

○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농촌진흥청, 2022~2026)

- (사업개요) 치유농업의 과학적 근거 확립과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으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정책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됨.
- (지원규모) 국비 600억원
- (지원대상) 전국 농업기술원, 대학, 연구기관, 치유농업 전문기관 등
- (지원내용) 치유자원의 생리·심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 지역 거점 치유농업센터 설립,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및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등 정책기반 마련에 중점적으로 지원함.

자료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 2022.

○ 치유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24)

- (사업개요) 지역 농가와 복지기관을 대상 공모사업,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됨.
- (지원규모) 개소당 3천만~1억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복지기관, 사회적농장, 지방농업기술센터
- (지원내용) 농장 내 체험 및 치유공간 개선비, 프로그램 기획 및 교재 제작비, 운영자 전문교육비, 참여자 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복합형 치유농업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치유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시행계획」, 2024.

○ 치유농업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농촌진흥청, 2023)

- (사업개요) 식물·동물·환경 등 다양한 농업자원의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 (지원규모) 약 25억
- (지원대상)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팀
- (지원내용) 심리·생리 반응 측정 연구, 치유자원별 효과 분석,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체계 구축, 정책연계 활용 기반 조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치유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시행계획」, 2024.

○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농진청위탁, 2023)

- (사업개요) 농촌진흥청 위탁사업, 지역 내 치유농장의 품질 향상 및 자립형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됨.
- (지원규모) 개소당 5천만~3억
-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치유농장 운영 농가 및 신규 창업자
- (지원내용)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훈련비, 안전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중심의 치유농업 기반을 강화함.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2023년 치유농장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인증 시범사업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농진청위탁, 2024)

- (사업개요)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제도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함.
- (지원규모) 약 15억
- (지원대상) 충남 지역 치유농장, 복지연계형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품질평가 기준 수립, 인증심사 시범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인증농장 홍보 및 브랜드화 추진

자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024년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인증 시범사업 계획」, 2024

○ 청년 참여형 치유농업 확산사업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농진청 위탁, 2025)

- (사업개요) 청년 농업인의 치유농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혁신형 농업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청년, 사회적농장 운영자
- (지원내용) 청년농업인·정신건강 전문인력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 시범사업 및 협의체 운영,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 연계 등

자료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2025년 청년 참여형 치유농업 확산사업 기본계획(안)」, 2024.

○ 협업형 치유농장 보급사업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023)

- (사업개요) 도심 내 병원・학교・복지기관과 협업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가능한 치유농장 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임.
- (지원규모) 10억
- (지원대상) 도시농장 운영자,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도심형 치유농장 조성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시민참여형 체험행사, 운영인력 교육비 지원.

자료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023년 협업형 치유농장 보급사업 운영계획」, 2023.

○ 도심형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인천광역시, 2024)

- (사업개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도시형 치유농업 사업임.
- (지원규모) 개소당 3천만원
- (지원대상) 사회복지기관, 주민자치회, 학교
- (지원내용) 도심형 치유정원 조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정서회복 활동비, 운영인력 지원 등으로 구성

자료 : 인천광역시, 「2024년 도심형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공시자료」, 2024.

○ 치유농업 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라남도 강진군, 2025 예정)

- (사업개요)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교육・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체험형 사업
- (지원규모) 5억
- (지원대상) 강진군 내 농업인, 마을 공동체, 복지기관
- (지원내용) 농장 인프라 개선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교육교재 개발, 홍보비를 지원하여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도모

자료 : 전라남도 강진군, 「2025년 치유농업 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25.

[표 3-3] 2023~2025년 치유농업 관련 주요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 기간	지원대상	지원 규모	주요 지원내용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농촌 진흥청	2022 ~ 2026	농업기술원,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관	600억	치유자원 효과 검증 연구, 치유농업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치유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024	농업경영체, 복지기관, 사회적농장, 지방농업기술 센터	개소 당 3천만 ~1억	농장 공간 개선, 프로그램 기획·교재 제작, 운영자 교육, 참여자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치유농업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농촌진흥청	2023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 대학 연구팀	25억	식물·동물·환경자원 효과 검증, 심리·생리 반응 연구,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체계 구축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2023	경북 내 치유농장 운영 농가 및 신규 창업자	개소 당 5천만 ~3억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안전관리 및 홍보비 지원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인증 시범사업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024	충남 지역 치유농장 및 복지연계형 농업경영체	15억	품질평가 기준 수립, 인증심사 시범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인증농장 브랜드화
청년 참여형 치유농업 확산사업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2025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청년, 사회적농장 운영자	-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및 협의체 운영, 청년 아이디어 사업 연계
협업형 치유농장 보급사업	서울특별시 농업 기술센터	2023	도시농장 운영자,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10억	병원·학교·복지기관 협업형 도심 치유농장 조성, 프로그램 운영, 시민체험행사
도심형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인천광역시	2024	사회복지기관, 주민자치회, 학교	개소 당 3천만	유휴부지 활용 치유정원 조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정서회복 활동비 지원
치유농업 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라남도 강진군	2025	강진군 내 농가, 마을공동체, 복지기관	5억	농장 인프라 개선,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발, 홍보비 지원

5) 사회적농업 지원 기본계획(현행 시행지침)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3~2025)」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본 지침은 사회적농업의 제도적 기반 확립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농장의 지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돌봄과 치유,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의 복지 기능 회복을 중심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농장의 확산과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양성, 복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 농업이 지역 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착되도록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둠.

- 지역 단위 사회적농장 확대 및 복합형 모델 발굴·육성
- 돌봄·치유·고용 연계 프로그램 지원 및 복지기관 협력 강화
- 운영자·코디네이터 교육,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역량 강화
- 인증제도 시범 운영, 평가체계 및 표준모델 마련

□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2023~2025)」은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 실행계획으로,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2023~2025)」, 2023.)

- (지원규모) 30억
- (지원대상) 인증 희망 사회적 농장, 복지연계형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인증기준 개발, 평가체계 구축, 인증심사 시범운영, 인증 농장 컨설팅 및 브랜드화 지원

자료 : 농촌진흥청, 「사회적농장 품질인증 시범사업 계획」, 2024.

○ (과제1) 사회적농장 확산과 지역 기반 모델 정착

- 농업을 통해 돌봄과 고용을 결합한 사회적 농업의 핵심 단위인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모델을 구축한다.
- 농업인과 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농업체계를 마련한다.
- 지역 내 농장과 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한다.

○ (과제2) 복지연계형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

-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치유, 돌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 복지・고용・보건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을 매개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사회적 농업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 (과제3) 인력 양성과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농장 운영자, 코디네이터, 돌봄인력 등 현장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 지역 단위의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 교류와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농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 (과제4) 제도 기반 마련 및 품질관리 체계 확립

- 사회적농장의 인증제도와 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 정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6) 사회적농업 관련 지원사업 (2023~2025년)

○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5)

- (사업개요) 사회적농업의 제도화 및 기반 확립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 핵심사업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고용・사회참여를 실현하는 사회서비스형 농업모델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원규모) 연간 약 100억 내외 (2023년 97억 → 2025년 108억 증가)
- (지원대상) 사회적농장, 예비 사회적농장, 복지기관, 농업기술센터
- (지원내용) 사회적농장 조성비, 돌봄・고용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인력 교육비, 지역 네트워크 구축, 복지서비스 연계비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시행계획(2023~2025)」, 2023.

○ 사회적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24)

- (사업개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농업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공모형 지원사업으로, 복지・고용 연계 기능 강화 중점
  농업모델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원규모) 개소당 5천~2억
- (지원대상) 사회적농장 운영 농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지원내용) 농장 시설개선,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4.

○ 사회적농장 인증제도 시범사업 (농촌진흥청, 2024~2025)

- (사업개요) 사회적농업의 품질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인증기준 마련 시범 운영 제도 구축형 사업.
  농업모델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원규모) 30억
- (지원대상) 인증 희망 사회적농장, 복지연계형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인증기준 개발, 평가체계 구축, 인증심사 시범운영, 인증 농장 컨설팅 및 브랜드화 지원

자료 : 농촌진흥청, 「사회적농장 품질인증 시범사업 계획」, 2024.

○ 사회적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라북도농업기술원, 2025)

- (사업개요) 사회적농업의 세대교체 및 혁신 강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창업 및 참여 확대 사업
- (지원규모) 개소당 1억
- (지원대상)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참여자
- (지원내용) 창업지원금, 프로그램 개발, 경영컨설팅, 협의체 운영비 지원

자료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2025년 사회적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25.

○ 도시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사업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025)

- (사업개요)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지・고용・교육 결합 도심형 사회적농업 모델 조성사업
- (지원규모) 개소당 5천~1억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복지시설, 도시농장 운영단체
- (지원내용) 도심형 사회적농장 조성비,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자료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025년 도시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사업 기본계획(안)」, 2025.

○ 사회적농업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24~2025)

- (사업개요) 마을 단위 사회적농업 공동체 육성 및 농촌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확립을 위한 광역형 시범사업
- (지원규모) 12억
- (지원대상) 마을공동체, 사회적농장,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공동체 운영비,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 연계형 홍보비, 인력양성비 지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4~2025년 사회적농업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2024.

[표 3-4] 2023~2025년 사회적농업 관련 주요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 기간	지원대상	지원 규모	주요 지원내용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023 ~ 2025	사회적농장, 예비농장, 복지기관, 농업기술센터	100억 내외	사회적농장 조성, 돌봄·고용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 복지연계,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농림축산식 품부	2024	사회적농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소당 5천만~ 2억	농장 공간개선,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사회적농장 인증제도 시범사업	농촌진흥청	2024 ~ 2025	인증 희망 사회적농장, 복지연계형 농업경영체	30억	인증기준 개발, 평가체계 구축, 인증심사 운영, 브랜드화 및 컨설팅 지원
사회적농업 기반 조성사업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2023	사회적농장 운영농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억	농장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홍보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회적농업 통합돌봄 시범사업	충청북도	2024 ~ 2025	사회적농장, 복지기관, 돌봄형 농업공동체	20억	농장 돌봄프로그램 운영, 복지기관 연계,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운영비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강원특별자 치도	2023 ~ 2024	사회적농장, 복지기관, 비영리단체	8억	협의체 운영, 공동마케팅, 지역포럼 개최, 자원연계형 사업모델 발굴
사회적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2025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청년, 협동조합	개소당 1억	창업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협의체 운영, 청년 아이디어 사업 연계
도시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사업	서울특별시 농업 기술센터	2024	사회적기업, 복지시설, 도시농장 운영단체	개소당 5천~1억	도심형 사회적농장 조성, 시민참여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협업 네트워크 구축

2.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 관련 법률

□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 관련 주요 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적용범위)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적용된다.
- (주요내용) 도시농업의 정의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지원센터 설치 및 교육・연구 지원 등을 규정함.
- (시행계획) 「제3차 도시농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이 추진 중이며, 도심 녹색공간 확충과 기후대응형 도시농업 확산, 사회적농업 연계가 주요 방향임.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적용범위) 농업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통해 국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주요내용) 치유농업의 정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치유농업센터 운영 등을 규정
- (시행계획) 농촌진흥청은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종합계획(2022~2026)」을 시행 중이며, 과학적 근거 확립, 거점센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중임.

○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사회적농업)

- (적용범위)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도모한다.
- (주요내용) 농촌공동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사업, 사회적농장 지정・지원 근거를 포함한다.
-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2023~2025)」을 수립하여, 사회적농장 지정・운영, 복지・고용 연계 프로그램,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

제4장 인천광역시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

1.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 관련 조례 현황

□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15. 4. 13 / 최근 개정: 2022. 6. 15)

○ (적용범위)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활동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의 보전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형 도시농업 정책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 (주요내용)
- 시장은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자문과 조정을 수행함.
- 도시농업 교육, 텃밭 조성, 시민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
-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사업의 근거 명시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홍보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체계 규정.

○ (운영사업) 「도시텃밭 조성사업」,
「학교연계형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도시농업 시민리더 양성과정」
도시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전문가·행정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도시텃밭 60여 개소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를 통해 인천 시민의 여가활동, 생태감수성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23.9.27)

○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전역의 농업자원(식물・동물・환경 등)을 활용한 치유・정서회복 활동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적용되며, 특히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회복, 삶의 질 향상 등 치유 목적의 농업활동 전반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 (주요내용)
- 시장은 5년 단위의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치유농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치유농장 조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의료・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사회적 처방형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
- 치유농업사의 교육훈련, 자격취득, 활동지원 등 전문인력 제도 기반 마련

○ (운영사업) 「도심형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024~)」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는 치유정원 및 농장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복지기관 연계형 치유프로그램 사업 등 병행추진중임.

□ 사회적농업 관련 제도적 기반

(근거: 「농촌진흥법」 제14조, 「사회적농업 육성법」, 2022)

○ (적용범위) 인천광역시는 별도의 사회적농업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국가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내 사회적농장, 복지형 농업경영체,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농업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복지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실현형 농업활동 전반을 포괄함.

○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 위탁을 통한 사회적농업 확산 시범사업 수행
-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기능을 결합한 복합형 농장 운영 지원
- 복지기관, 사회적기업, 청년농업인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델 구축
-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조례의 협력조항을 근거로 지역사회 복지정책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

○ (운영사업) 「사회적농업 확산 시범사업」
「복지연계형 치유농장 모델 구축사업」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노인·청년 등 다양한 참여계층을 포용하는 사회적농장 운영모델을 실험하고 있으며, 복지기관·의료기관·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돌봄과 지역공동체 회복 기능을 강화

2. 인천광역시 치유농업·사회적농업 추진 현황

□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추진 현황 (2023년 ~ 2025년)

○ (개요) 인천광역시는 식물이나 농작물, 농장시설 등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농업, 복지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왔다. 2023년부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농장 연계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 (주요사업)
-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기초과정) 108시간 운영
-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8회기 운영
-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속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인증제 등 계획

○ (주요사업1) 2023년 인천광역시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기초과정)' 을 시행하였음.
- 교육기간 : 2023년 7월 5일 ~ 10월 11일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10:00 ~ 17:00 (18회 108시간)
- 교육대상 : 치유농장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농업인(강화, 옹진 포함)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치유정원 교육장 등
- 교육내용 : 치유농업 및 자원의 이해, 치유농업 시설 준비 및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그림 4-1] 2023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시행 현장사진1

자료 : 인천광역시청

[그림 4-2] 2023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시행 현장사진2

자료 : 인천광역시청

○ (주요사업2) 치유농장과 공공기관을 연계하여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 대상 치유활동을 도입하였다.

- 운영내용
  - 기관으로 찾아가는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업프로그램
  - 텃밭 활용 원예 중심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전·후 검사 / 만족도 조사

[표 4-1] 2024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8회기 계획

일자	활동명	주요활동	활동목표
9월3일	반갑게 안녕	오리엔테이션 압화이름표만들기 텃밭작물심기	- 치유농업프로그램 목적 이해하기 - 나를 표현하는 수식어 찾기 - 식재 방법에 맞게 모종 심기
9월10일	행복을 부르는 꽃·향기	텃밭팻말만들기 허브·초화류 심기	- 모듬 이름 짓기 - 내가 좋아하는 허브 향기 찾기
9월24일	마음 정원	미니정원만들기	- 식물 특성에 맞게 합식하기 - 정원 이름 지어주기
10월1일	마음 돌봄	수확하기(1차) 솎아주기 난각칼슘만들기	- 수확 방법에 맞게 수확하기 - 계란껍질과 식초를 활용해 천연방제제 만들기
10월8일	너를 응원해	천연방제하기 꽃바구니만들기	- 자신의 강점 발견하기 - 나를 칭찬하는 메시지 적기 - 꽃바구니 완성하기
10월15일	마음 소리	허브 수확하기 아로마롤온만들기	- 허브 수확 및 세척하기 - 아로마에센셜 오일로 감각자극하기 -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방법 찾기
10월22일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갈무리 팜투테이블	- 텃밭을 갈무리하며 스스로 정리하기 - 텃밭수확물을 활용해 간식만들기 - 수고한 나를 위해 대접하기
10월29일	뜨거운 안녕~!	텃밭졸업식 허브솔트만들기	- 허브를 손으로 부수며 감각자극하기 - 허브 솔트 완성하기 - 텃밭 졸업식을 하며 서로를 축하하기

자료 : 인천광역시청

[그림 4-3] 2024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사진1

자료 : 인천광역시청

[그림 4-4] 2024년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사진2

자료 : 인천광역시청

○ (주요사업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치유농업 교육이 정례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교육도 병행되었다. 또한 실직자와 구직자를 위한 치유 기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용·복지 연계형 치유농업 모델을 확대하였다.

1)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운영

- 상반기·하반기 치유농업 체험형 교육과정 운영
- 실습 중심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민 참여 확대
- 교육 종료 후 역량 평가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기반 구축

[그림 4-5] 치유농업 수요자 교육 현장사진1

자료 : 인천광역시청

2)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 운영자 전문 교육과정 정례화
- 치유 프로그램 기획·운영·안전관리 역량 강화
- 운영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 공유

[그림 4-6]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현장사진1

자료 : 인천광역시청

3)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치유활동 제공
- 유관기관 협력 강화(복지·보건·교육 등)

[그림 4-7]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사진1

자료 : 인천광역시

3. 국내 치유농업 우수사례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추진사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을 도시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도입한 대표사례로, 시민의 정신적, 안정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공간모델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거점형 치유농장과 보급·협업형 치유농장, 문화예술 연계형 치유예술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 다층적 구조를 통해 치유농업의 사회적 적용 범위를 복지, 문화, 고용 영역까지 확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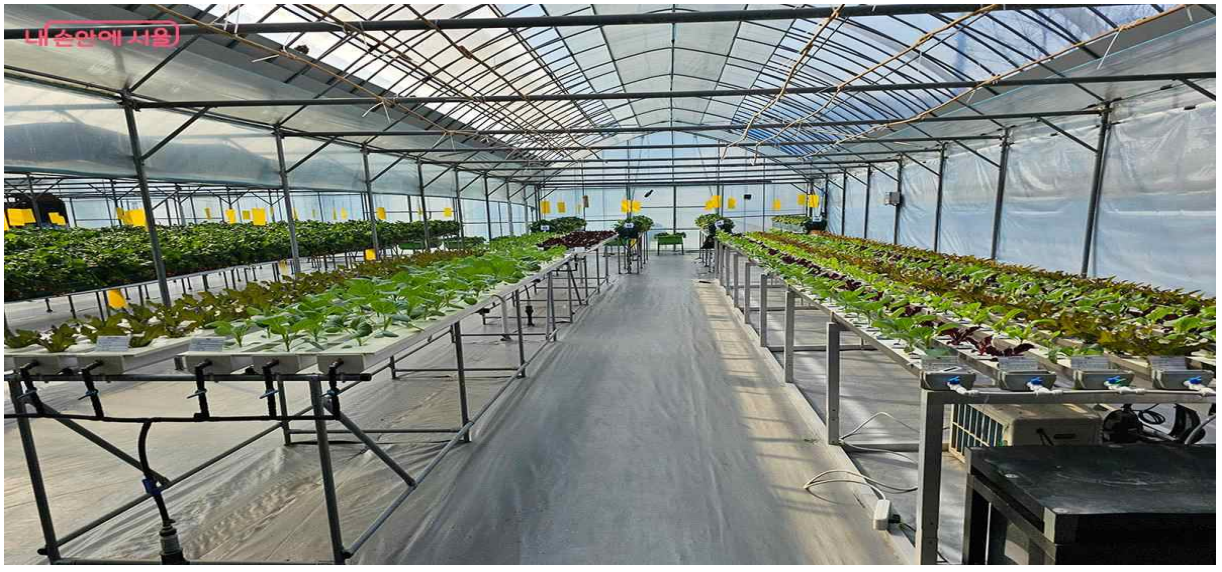
○ 거점형 치유농장·보급 및 협업형 치유농장

1) 거점형 치유농장

거점형 치유농장은 서울시치유농업센터(강동구), 내곡동 농업기술센터 내 치유농장 등 도시농업기술보급과 치유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단기·장기 치유 프로그램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과정
- ‘실험·모델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플랫폼

[그림 4-8] 거점형 치유농장 스마트팜 현장 사진



자료 :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3427

2) 보급・협업형 치유농장

보급・협업형 치유농장은 서울에 소재한 의료기관, 재활시설,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성되는 분산형 치유농장이다.

[그림 4-9] 서울특별시 보급형 치유농장 현황

자료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https://agro.seoul.go.kr/archives/52506

3) 보급형 치유농장의 운영 특성

보급형 치유농장은 지역별 특성과 참여 기관의 성격을 반영하여 운영 방향과 대상군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각 공간은 주민의 상황과 요구를 세밀하게 살피며 프로그램 목적을 정한다.

예를 들어, 강서구는 부부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을 회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강동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겪는 긴장과 피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일상 만족도를 높이는 심리적 회복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이처럼 각 치유농장은 참여 집단의 정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활동을 설계함으로써 운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보급형 치유농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각 치유농장의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치유농업사와 전문 강사를 배치해 프로그램 품질을 높인다.

또한 운영 경비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참여자 모집·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관 단위의 독자적 운영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지원 구조는 기존의 거점형 중심 운영을 넘어, 시민 생활권 곳곳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4) 치유농업과 예술을 융합한 '치유예술제'

서울시는 치유농업을 예술과 결합한 치유예술제를 통해 시민이 자연·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전시, 경연, 정원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각적 치유 경험을 제공하며, 발달장애 예술단 참여 등 사회적 포용 가치도 함께 확장하는 행사이다. 결국, 치유예술제는 치유농업의 공공적 가능성을 문화예술 영역까지 넓힌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표 4-2]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예술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대효과
전시 프로그램	사진, 생태 세밀화, 문학 작품 등 자연·예술 기반 전시	시각적·정서적 안정감 제공
체험형 활동	풀멍·하늘멍 정원 체험, 정원 활용 프로그램	감각적 치유 경험 확대
경연 프로그램	푸드아트 테라피 경진, 아이디어 정원 경연	시민 참여 확대, 창의적 표현 촉진
공연	발달장애 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예술 무대	사회적 포용 및 공감 강화
행사성격	치유농업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복합 문화행사	치유농업의 공공성 확대 및 시민 접근성 강화

[그림 4-10]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유예술제 포스터

자료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5) 서울시 치유농업 프로그램 주요 운영내용 및 운영구조

서울시는 거점형과 보급·협업형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도시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거점형 공간에서는 센터가 직접 장·단기 프로그램과 맞춤형 과정을 상시 제공하며, 보급형 치유농장은 의료기관·복지시설·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생활권 안에서 분산 운영된다. 각 치유농장은 지역의 상황과 대상군의 특성에 따라 부부 관계 회복, 직무 스트레스 완화, 일상 만족도 향상 등 목적별 활동을 설계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원예활동 중심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시간 노동과 경제적 부담으로 지친 참여자들이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단기 참여형 프로그램도 제공해 시민이 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 경험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4-11]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 심리회복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장사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 강원농업기술원 치유농업 추진사례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농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농장과 마을을 치유 거점으로 지정하며 기반을 넓혀 왔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심신 회복을 위한 농촌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은 2025년을 목표로 치유농업 확산 전략을 추진하며, 전문 인력 양성, 치유센터 조성,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표 지역인 춘천에는 치유농장과 치유마을을 포함해 50여 개가 넘는 치유농업 거점이 운영되고 있다.

○ 강원농업기술원 2025년 추진계획

1) 치유시설 신규 구축 및 품질 고도화

- 도 단위 치유농업 거점시설(도원 치유센터) 조성 추진
- 시·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치유공간 8개소 정비 및 추가 확충
-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원예·정서·감각 자극·신체활동 등) 개발 및 현장 적용

2)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치유농업사 40명 양성
  (농업·원예·상담·치유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
- 시설운영자 40명 양성
  (치유농장의 운영·관리·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는 운영 전문가)

3)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조직·협의체 구성

- 도내 4개 권역(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운영
- 참여 구성 : 기술원, 시·군 담당부서, 치유농장·치유마을 운영자, 전문가

• 프로그램 상호 검토 및 자문
• 권역별 치유농업 수요조사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인력양성 및 현장실습 연계
• 치유농장 간 공동홍보 및 지역 연계 사업 기획

4) 2025년 치유농업 예산규모 및 현장확산 전략

- 총 17억 2,700만 원 투자(치유·체험 현장확산 분야)
  - 치유농업 거점 조성 및 시설 개선
  -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고도화
  - 치유농업사·운영자 교육비 및 실습비, 체험농장 발굴 및 인증 지원
- 방문형 치유농업 확대
  (학교, 복지기관, 병원 등 대상기관으로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 제공)
- 다회차 프로그램 전환
  (단순 1회 체험에서 벗어나 4~8회기 반복형 프로그램으로 전환)
- 체험농장 품질관리 및 인증체계 강화
  (치유농장 품질관리 지표 마련, 프로그램 운영기록 관리 및 평가 시스템 도입)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농업을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치유농업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치유농장·치유마을을 꾸준히 지정해 왔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시설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 같은 정책적 흐름은 강원도가 지닌 자연·생태 환경과 맞물리며 지역에서 치유농업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도내에서는 50여 개가 넘는 치유 거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구현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마을・농촌교육농장 운영 현황

1) 치유마을 운영특징

치유마을은 마을 단위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심신 안정과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꽃・숲・하천・마을길 등 일상적 경관을 치유 콘텐츠로 구성하고, 주민들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일부 마을은 원예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마을은 산림치유・생태탐방・명상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구조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2) 농촌교육농장의 역할

농촌교육농장은 농업과 생태환경을 교육의 매개로 활용하는 곳으로, 학생・가족・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작물 재배 과정 이해, 생태 관찰, 먹거리 교육, 농업기술 체험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특산물이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많다. 일부 농장은 카페, 가공시설, 체험장 등을 함께 운영해 교육 기능과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3) 치유농장 운영방식

치유농장은 일상적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두고 원예・채소 재배・허브 가꾸기 등 농업활동 기반 체험을 제공한다. 고령층, 장애인, 청소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며 전문 인력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활동이 돌봄・치유와 연결되며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지정농장의 선정 기준

표에 정리된 농장과 마을은 기술원의 심사와 검토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자연환경, 프로그램 구성 역량, 공간 안전성, 운영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치유마을·교육농장은 지역 특성을 담아내는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운영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문단 아래 제시되는 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유마을·치유농장·농촌교육농장의 주요 특징과 프로그램 내용을 지역별로 구분해 정리한 것이다.

[표 4-3]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마을농장 마을형

시군	마을/농장명	주요프로그램	주소
춘천	금옥골마을	마을산책, 아로마테라피, 약초족욕	동면 금옥1길 27-5
	누리삼마을	피크닉형 치유프로그램, 치유도시락	북산면 원동조교로 601-4
	은행나무마을	옥족욕&명상치유, 치유텃밭, 꽃차	동면 가산로 45
원주	승안동마을	미술 치유, 수확체험, 커피 로스팅	흥업면 승안동길 146-6
강릉	소금강마을	농·산촌 자원 연계 오감치유 프로그램	연곡면 진고개로 1826-11
	한울타리마을	치유텃밭, 치유음식, 힐링캠프	옥계면 북동용소길 137
	솔내마을	치유식물, 차 명상, 마음 치유	연곡면 삼산4리 1065
삼척	가온벨리	유황온천수와 함께하는 힐링여행기	가곡면 가곡천로 905-8
	덕풍계곡마을	덕풍계곡 치유 트레킹	가곡면 풍곡안길 17-4
	미로두타마을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마을(방앗간, 원예)	미로면 강원남부로 3920
홍천	열목어마을	열목어로 거듭나는 농촌치유	내면 명개로98
	물걸2리마을	건강밥상, 정원 치유텃밭	내촌면 조운길 40
	동키마을	동물교감 가족형 프로그램	화촌면 구룡령로 149
횡성	태기산치유마을	복조리플라워, 숲트레킹	청일면 청일로 779번길 117
	고라데이마을	갱년기, 경증치매 노인 대상 치유프로그램	청일면 봉면로 375-1
	춘당노다지휴양마을	아빠랑 놀자, 친구야 학교가자	청일면 춘당로 232
영월	연하계곡치유명당마을	청정 자연 속 치유명상, 원예치유	영월읍 연하리 99-2
평창	대관령눈꽃마을	숲놀이터 체험,가족 숲체험	대관령면 차항서녘길 27-25
정선	정선다움영농조합법인	자연애올 원예 치유	북평면 남평강변길 296
철원	금강산철길마을	DMZ 치유여행, 재잘재잘 소풍치유	갈말읍 정연길 129-21
화천	파로호느릅마을	사계절 치유정원 만들기	간동면 파로호로 923-15
양구	국토정중앙배꼽마을	지역 식재료 활용 음식만들기	국토정중앙면 봉화산로 425
인제	냇강마을	음식치유, 워킹치유, 소리 치유	북면 냇강마을안길 265-14

자료 : 강원농업기술원 누리집

[표 4-4]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마을농장 농장형

시군	마을/농장명	주요프로그램	주소
춘천	헬로토마토	토마토 푸드테라피, 우드테라피	신북읍 문정3길 11-28
	1004 치유농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토닥토닥 마음치유"	신북읍 천전리 1004
	고은원예치료센터	원예치유(키친가든 이야기)	신북읍 맥국2길 132
원주	㈜곤충들세상	나비의 한해살이	신림면 선학길 104
	명봉산솔밭농원	명봉산 솔밭 숲속치유	흥업면 승안동길 242-56
	허브정원 푸실	허브치유	원주시 치악로 2150-2
	원주자연생태원	곤충치유	소초면 검엉터길 7-20
강릉	수을향	전통주, 전통음식 상차림	왕산면 옷밥골길 48-7
	들꽃편지	허브 향기 치유, 키친가든	연곡목 삼산길37
	해품달	키친카든 만들기	사천면 해살이길19-17
태백	태백구문소힐링캠프	치유글램핑	태백로 2417
	윤박사 힐링팜	치유와 회복의 텃밭 가꾸기	철암동 87-3
삼척	봄볕 내리는 날	물과 빛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노곡면 문의재로 2549
	무야초당	산사꽃 정원에서 약초 여행하기	노곡면 주지로 220
	오미미술원	오미자 족욕, 치유음식	도계읍 강원남부로735-338
홍천	하이디 치유농원	감성농업(휴식)	서석면 구룡령로 2852
	흙집 치유동산	느끼go 1·2·3 & 누리go1·2·3 등	두촌면 칠정여내길 217
	빛돌바람	블루베리 가꾸기&키친가든	서석면 진여울길46번길36
	장풍이 체험학교	곤충체험, 토종다래, 요리체험 등	영귀미면 개운절길 142-7
	자운마루	돌배, 약용작물, 농촌경관 치유	내면 경천길 301
	메아리 자연농장	맛있는 치유프로그램 '쌀콩달콩'	두촌면 대동평길 156

자료 : 강원농업기술원 누리집

[표 4-5]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마을농장 농장형

시군	마을/농장명	주요프로그램	주소
횡성	노아의 숲	노아의 숲, 초록쉼표 치유여행	갑천면 외갑천로 694번길 92-20
영월	꽃피는 산골	치유음식(화덕피자·꽃차) 만들기, 식물원 및 과수원길 산책	영월읍 청령포로 177-3
	채식힐링농장	농작물을 활용한 푸드테라피	무릉도원면 중방길 2
	청슬재농장	그림 명상치유	주천면 송학산로 261-14
평창	평창라벤다팜	허브치유	진부면 두일길 279-16
	쪽빛하늘	자기주도형 치유탐방, 별이야기	봉평면 흥정계곡길 20-5
	황토구들	열 치유 프로그램, 힐링제빵	용평면 의풍포길 23-10
	천지애농원	힐링 핌크닉, 힐링푸드	대화면 상안미 옛길 164-141
정선	쉼팩토리	“유기농 표고버섯·옥수수·원예·작가와 전통공예 치유”	남면 광락로 270
철원	치유농장 나누팜	원예치유(나를 찾는 식물잔치)	동송읍 상노로 454-1
	늘푸른영농조합	원예, 동물교감 치유	서면 와수로 62번길 45-3
인제	물소리바람소리	스톤아트, 꽃차만들기, 천연염색	인제읍 하추로 534
고성	꽃내라팜	원예치유, 멍치류(불,별,숲멍)	간성읍 꽃내마루길 75
	화진포산학다원	녹차밭 둘레길 걷기, 녹차만들기	현내면 죽화로 110-5

자료 : 강원농업기술원 누리집

[표 4-6]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교육농장1

시군	마을/농장명	내용	주소
춘천	해피초원목장	누렁이의 한살이(한우)	사북면 춘화로 330-48
	HELLO 토마토	토마토이야기	신북읍 문정3길 11-28
	즐거운농원	I love peach	동내면 금촌로 94-37
	박사마을 홍가네 블루베리	고마운 블루베리	서면 오미길 30
	로즈랑스	식용장미 오감체험	남면 충효로 799-26
	만나포도원	맛나포도 수확체험	신북읍 지내고탄로 202-56
원주	곤충농장벅스팜	곤충창작 체험	귀래면 북원로 563-14
	고니골	칼라누애, 명주실	호저면 호저로 1277-43
	최고자연	아생화, 생태프로그램	소초면 상초구길 84
	풀빛고운	포도, 토마토, 천연염색	부론면 손곡양지말길 27
	매지사과농원	건강한 사과 영양제 등	흥업면 미촌길 27-19
	고구마놀이터	조엄고구마 이야기 등	지정면 지정로 572
	돼지문화원	돼지의 모든 것	지정면 지정로 130
강릉	들꽃편지	허브, 야생화	연곡면 삼산길 37
	록영다례원	단오풍습, 차와 예절	사천면 중앙서로 470-6
	해품달	행복한 감자 찾아가기	사천면 해살이길 19-15
	베리베리굿	산딸기 이야기	옥계면 풍동로 406

자료 : 강원농업기술원 누리집

[표 4-7]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교육농장2

시군	마을/농장명	내용	주소
동해	남기우벌꿀	꿀벌의 상부상조	봉정2길 10
	잇꽃공방	염색은 과학이야	비천길 295-3
태백	태백산채마을	산채이야기, 곰취는 숲속의 보물	용정길 71
	작은행복	작물의 한살이(다육 등), 도자기 등	소롯골길 32
삼척	오잉크팜	나만의 소시지, 아기돼지 이야기	원덕읍 사곡길 340
	황토내음친환경	발효식품(김치,장류 체험)	원덕읍 사곡길 508-21
	솔뫼	다도, 다례	노곡면 문의재로 2942
	봄볕내리는날	천연염색, 섬유공예	노곡면 문의재로 2549
	자연희농장	누에한살이, 천연염색	원덕읍 사곡길 528
	가시랭이농원	아낌없이 주는 사과이야기, 사과한살이	가곡면 가곡천로1536-106
홍천	꿀동이	돼지이야기	화촌면 산초울로 164-15
	장풍이체험학교	곤충과 친해지기(한살이)	동면 개운리 411
	수림포도	포도의 한살이, 포도만두 빚기	남면 시동로 361
	풀잎이슬	자연생태교육, 녹색식생활, 진로교육	서면 팔봉산로 662-44
	홍천떡팜	벼농사 프로젝트, 진로직업체험	화촌면 굴운로 75번길 74-19
	동키캐슬	당나귀와 교감하기	홍천읍 며느리고개길148-18
	메아리자연농장	봄철의 생활 및 계절음식 알아보기	두촌면 대동평길 150

자료 : 강원농업기술원 누리집

[표 4-8]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교육농장3

시군	마을/농장명	내용	주소
횡성	채림의 정원	꽃누르미, 꽃표본	우천면 정포로 34
	글로리아허브	허브식물 관찰	갑천면 갑천로 872번길 148
	에덴의 꿀벌학교	꿀벌 한살이	횡성읍 한우로 797-8
	꿈꾸는 풍뎅이	동물농장, 지구환경	공근면 금계서로 361-9
	천연염색꽃물공방	천연염색교육	강림면 강림서길 85-10
	예다원	꽃차 제다, 다도교육	공근면 항재로 행정2길 15
영월	산속의 친구	산속생태교육(장류, 메밀전병)	북면 덕전길 132-53
	무릉도원	역사·생태교육	수주면 도원운학로 28-12
	물바람버섯	버섯이야기(버섯수확, 버섯피자 등)	영월읍 영월로 3206-2
	가향농원	토종다래 놀이터, 다래나무 가꾸기	김삿갓면 김삿갓로 764
평창	쪽빛하늘	메밀아 놀자(메밀, 요리, 마술 등)	봉평면 흥정계곡길 20-5
	평창팜	곤드레이야기, 송어 맨손잡기	방림면 고원로 898-43
정선	쉼팩토리	在美있는 꽃놀이	남면 광락로 270
철원	뽕이네	누에관찰, 김치, 두부	동송읍 양지3길 3-33
	뚜루뚜루철새교실	DMZ생태탐조, 쌀비누	상서면 토고미길22-8
화천	토고미자연학교	동물농장, 도정체험	상서면 토고미길22-8
	화천비타민나무	비타민나무이야기, 비누만들기	간동면 도송길 160-12
인제	냇강친환경	깻잎, 블루베리 이야기	북면 냇강마을안길 272
	물소리바람소리	자연환경(에너지) 이야기	인제읍 하추로 534
	한계사슴농원	사슴이야기, 꽃차	북면 설악로 3582
	구본준농원	다래 이야기	남면 관대길 16-9
고성	꽃내라팜	사슴, 라벤더	간성읍 꽃내마루길 75
양양	오색허브농원	허브식물 학습	서면 송어길 38
	오색전통장	전통장체험	서면 백담길 66-1

자료 : 강원농업기술원 누리집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수사례

1) 춘천 고은꽃원예치료센터 (치유농업)

운영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2길 132
운영특성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교육 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대상자 특성에 맞춘 반복・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운영대상 :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농업・생태 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기관 연계 참여자
운영내용 :
- 원예활동, 텃밭・재배 체험
- 산림・자연 치유, 생태 산책
- 작물・생태 교육, 전통 농사・가공 체험
치유프로그램 : 키친가든 만들기, 허브비누&향주머니만들기, 가든관리,
나의 첫 씨앗 일기, 원예심리상담, 노인대상 원예치유프로그램 등

[그림 4-12] 춘천시 고은꽃원예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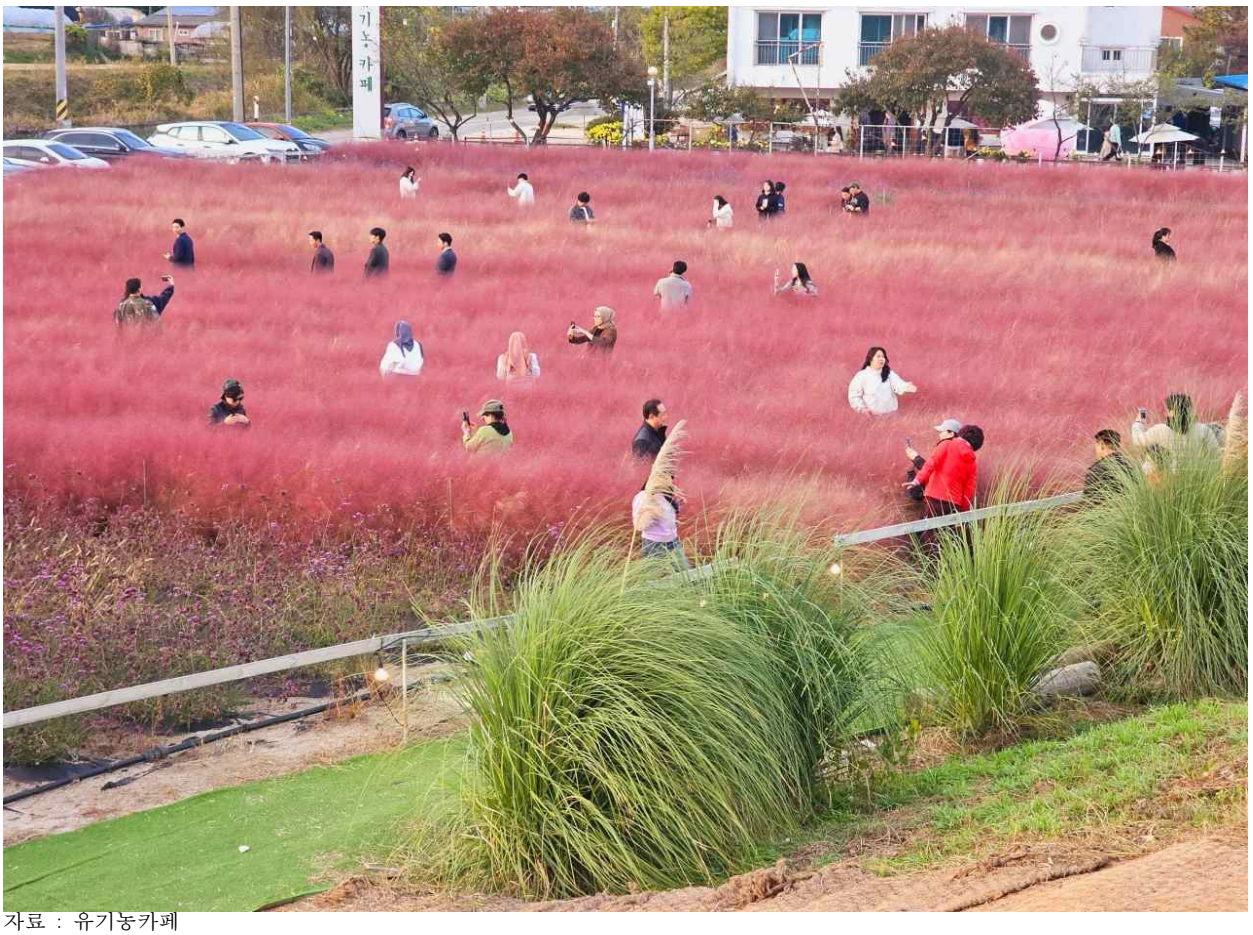
자료 : 농촌진흥청 블로그, 고은꽃원예치료센터

2) 유기농카페 (사회적농업)

운영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고탄로 184
운영특성 : 넓은 꽃 정원과 자연 풍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원형으로 조성되어있으며, 봄(튤립), 여름(수국), 가을(핑크뮬리) 등 계절별 경관을 활용한 포토존이 대표적이다. 실내·외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자연 체류형 휴식 경험을 제공함.
운영대상 : 가족, 연인, 친구 등 일반 방문객 등
운영내용 :
- 계절별 꽃정원 관람 및 산책, 사진 촬영
- 카페 음료·디저트 판매(계절 특화 메뉴 포함)
- 야외 정원을 활용한 휴식 공간 제공

치유프로그램 : 사계절 꽃정원·포토존 체험, 겨울썰매체험, 꽃공예 원데이 클래스

[그림 4-13] 춘천시 사회적농장 유기농카페



자료 : 유기농카페

3) 파머스가든 (6차산업 청년농 우수사례)

운영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380
운영특성 :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구황작물을 활용한 이색 빵 메뉴들로 차별화가 되어 있으며, 농장느낌을 살린 베이커리 카페이다.
운영대상 : 가족, 연인, 친구 등 일반 방문객 등
운영내용 :
- 구황작물 빵(옥수수빵, 감자빵 등) 및 다양한 디저트류
- 유기농 허브차, 에이드, 커피 등 음료
- 야외 잔디마당과 테라스형 좌석이 있어 휴식・사진촬영・산책 가능

치유프로그램 : 향수만들기, 핸드크림 만들기, 바디미스트 만들기 등

[그림 4-14] 춘천시 파머스가든

□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사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농업문화 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 기반을 넓혀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정서 회복, 심리 안정, 생활 치유를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숲·농업·곤충·체험농장 등 여러 자원을 조합해 제주만의 치유농업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업기술원과 동부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등이 협력해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교육기관·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치유농업의 범위를 꾸준히 넓혀 왔다.

최근 제주도는 미래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친환경 자원 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은 곤충산업뿐 아니라 치유, 교육, 체험을 아우르는 농업 분야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련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유농업이 지역경제와 복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지고 있다. 곤충 프로그램은 그중 하나의 영역일 뿐이며, 숲 공간을 활용한 치유활동, 농촌교육농장의 체험형 프로그램, 지역농가가 운영하는 치유형 텃밭·정원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21년부터 치유농업을 전략사업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기반 구축에 나섰다. 지금까지 도내에 19개소의 치유농장을 조성해 지역별 거점을 마련했고, 2025년까지 4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을 밝히며 치유농업의 공간적·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레숲과 같은 숲치유형 치유농장은 곤충 치유 프로그램과는 다른 운영 방식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어, 제주도 치유농업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제주도는 치유농업 인력 양성에도 빠르게 대응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치유농업사를 배출한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치유농업사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강화한 점 역시 제주도 치유농업 성장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처럼 제주는 농촌·숲·곤충·가공체험 등 여러 자원을 조합해 복합형 치유농업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치유농장 운영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1) 덕천곤충 영농조합법인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운영장소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1875
운영특성 : 장수풍뎅이・사슴벌레 등 곤충을 활용한 정서 치유형 체험 농장으로, 곤충 사육・생태교육・체험・가공을 아우르는 농촌융복합 방식으로 운영된다. 치유곤충을 활용한 심리 안정, 호기심 자극,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핵심 특징이다.
운영대상 :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정서지원대상군, 일반 가족단위
운영내용 :
- 곤충 생태 이해 및 직접 관찰 활동
- 곤충 만져보기・돌보기 등 교감 체험
- 곤충을 활용한 창의 활동(곤충집 만들기 등)
- 곤충을 주제로 한 농촌융복합 체험 운영(사육-체험-가공・판매 연계)

[그림 4-15] 제주 덕천곤충 영농조합법인

2) 제주 이레숲 치유농장

운영장소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319번길 42
운영특성 : 농촌교육농장으로 시작한 이곳은 농어촌 식생활체험공간으로 지정된 후 현재는 치유농업 중심 거점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자연미술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있으며 농업·치유·관광이 융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대상 : 청소년, 교육기관 대상자, 가족단위 방문객, 관광객 등
운영내용 :
- 감귤밭 보물찾기 등 농작물 기반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연미술, 농업체험, 텃밭활동이 혼합된 학습·치유 프로그램 설계
- 농촌융복합 구조를 활용하여 농업·체험·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

[그림 4-16] 제주 이레숲 치유농장

□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우수사례 분석 및 정책적 방향

1) 사례 비교분석

국내 치유농업은 지역별 각기 다른 자연환경과 사회적 여건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서울은 도시형 치유농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지역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거점형 치유농장, 의료·재활기관과 연계한 분산형 치유농장, 그리고 감각·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반 활동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팜과 도시농업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공간을 만든 점, 치유예술제와 같이 문화·예술과 연결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서울형 모델의 핵심 특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농업을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도내 여러 시군에 치유농장·치유마을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공동체형 구조를 강화해왔으며, 농촌교육, 원예·자연체험, 생활 기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치유농업 모델이 강원 지역의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운영되는 치유농장이 50곳을 넘는다는 점에서도 생활 속 치유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 자연환경과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해 복합형 치유농장 모델을 발전시킨 지역이다. 숲·농장·체험·관광을 하나의 구조로 엮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곤충자원을 정서 치유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덕천곤충 영농조합법인은 장수풍뎅이·사슴벌레 등 정서자극형 곤충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치유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곤충 관찰·돌봄·가공 등 농촌융복합 구조까지 갖추고 있다. 이레숲 치유농장은 숲 환경과 농촌체험을 연결해 자연 기반 치유모델을 강화하고 있어 제주형 치유농업의 또 다른 유형을 대표한다.

이 세 지역의 사례를 비교하면, 서울은 정서·감각 중심의 도시형 모델, 강원은 생활권 기반의 공동체형 모델, 제주는 자연자원·관광·곤충을 활용한 복합형 모델로 정리된다. 운영 목적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유효과를 생활 속에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며, 치유농업이 지역의 문화·복지·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국내 치유농업 사례 시사점

치유농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도시·농촌·관광지 등 공간이 가진 기능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춘 설계가 필요함을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서울은 시민 대상 정서 관리와 감각 회복, 강원은 생활환경 기반의 교육·공동체 활동, 제주는 자연경관·곤충·관광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분명해졌다. 취약계층·고령층·장애인·아동·청소년 등 대상마다 필요로 하는 치유 요소가 뚜렷하게 다르다. 예를 들면, 곤충을 활용한 정서 치유 활동은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이지만 고령층에게는 원예·산림 기반 프로그램이 더 안정적인 치유효과를 준다. 이는 프로그램의 표준화보다 대상 맞춤형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은 전문 인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과 강원에서 확인되듯 치유농업사의 양성, 운영자 교육, 프로그램 기획 역량 강화 등이 질적 고도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치유활동은 단순 체험이 아니라 심리적·감각적 회복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은 필수 기반으로 판단된다.
치유농업은 문화·관광·복지와 결합할 때 확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치유예술제, 강원의 치유마을 중심 프로그램, 제주 농촌관광·체험 중심 모델은 치유농업이 단독 산업이 아니라 복합적 영역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도농 간 이동이 많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치유농업과 관광의 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지역별 운영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과 안전성, 시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치유 효과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체계가 없다면 치유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3) 적용 가능한 정책적 제언

치유농업이 각 지역의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 방식에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의 다양한 시도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각 지역의 강점을 제대로 반영한 방향 설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로 기후・환경・수요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하나의 방식으로 묶어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에 어울리는 틀을 따로 마련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도시에 기반한 치유농업은 심리적 피로가 큰 도시민을 위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농촌 지역은 자연을 활용한 체험과 교육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면 치유농업을 관광과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지역별 모델을 구분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치유농업은 참여하는 사람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기대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에 맞춘 세부 지침도 필수적이다. 고령층에게는 신체 활동 부담이 적고 안정감을 주는 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안전성과 접근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갖춰지면 운영자들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서비스 품질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출 수 있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이끄는 사람들의 전문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단순한 체험을 안내하는 역할이 아니라, 참여자의 감정 변화나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교육 방식이 치유농업사 양성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는 기획・보조・현장 운영 등 세분화된 역할별 교육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실제 농장에서 체험을 동반한 실습형 교육이 늘어나면 운영자들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치유농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기준과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프로그램 수준, 운영자의 전문성, 시설의 안전성 등 핵심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마련된다면 치유농업의 신뢰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인증제 형태로 운영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유농업은 다른 분야와 결합했을 때 더 넓은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화·관광·복지 영역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축제나 관광코스, 복지시설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관광 비중이 큰 제주 같은 지역은 치유농업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했을 때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유 활동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면 치유농업의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고, 정책예산 확보와 향후 제도개선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험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근거 기반의 행정이 병행될 때 치유농업은 더욱 안정적인 사회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제5장

사례 비교·분석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제5장 사례 비교·분석 및 활성화 방안 도출

1.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우수사례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

□ 사전답사

- 일시: 2025.03.05.
- 장소: 꽃뫼농원(인천 서구 검암동)
- 목적: 관내 도시농업 현황 파악 및 6차산업 실증모델 자료 수집 등
- 주요내용 :

1) 도시농업 운영 구조 파악
   -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체험·가공·직거래가 연계되는 운영방식 확인
   -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접근성 검토
2) 6차산업 연계 가능성 조사
   - 생산, 체험, 소비의 순환 구조 확인
   - 향후 치유농업 프로그램 결합 가능성 탐색
   - 농장 운영자의 지역 연계 활동 및 협력 구조 분석
3) 현장 운영 강점 및 시사점
   - 지역민과의 교류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참여 확대 가능성 높음
   -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 치유농업 프로그램 설계 참고 가치 높음.

[그림 5-1]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사전답사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누리집

□ 제8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일시: 2025.03.18.
- 장소: 철마도시농업공원 및지원센터(부산기장군) / 부산시 기장군의회
- 목적:도시농업 최우수기관 및 도시농업공원 운영 사례 수집 등
- 주요내용 :

1) 도시농업공원 운영구조 파악
   - 공원 내 텃밭 운영 방식, 시민 참여 절차, 공간 구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 농업 기반시설을 공원 기능과 자연스럽게 결합한 사례 검토

2) 도시농업지원센터 역할 분석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및 연간 참여 규모 파악
   - 체험·교육·자원관리 등 기능이 한 공간에 집약된 구조 확인
   - 도시농업 참여자 지원 방식·상담 체계 조사

3) 우수기관의 정책운영 사례 수집
   - 기장군의회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지역 도시농업 정책의 추진 배경 확인
   - 조례 운영, 예산 구조, 주민 참여 확대 전략 등 정책적 기반 조사
   - 도시농업을 지역사업과 연계한 운영 흐름 파악

[그림 5-2]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8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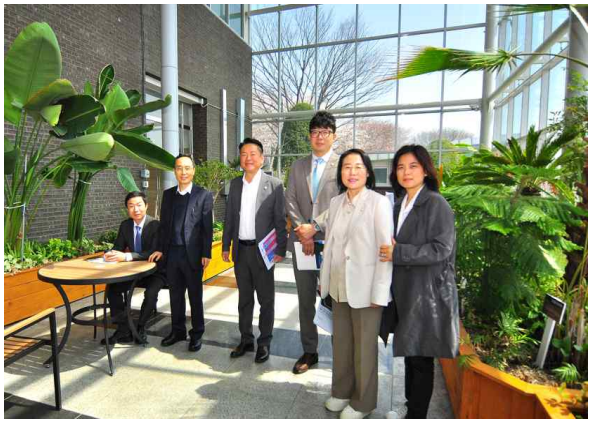
□ 제9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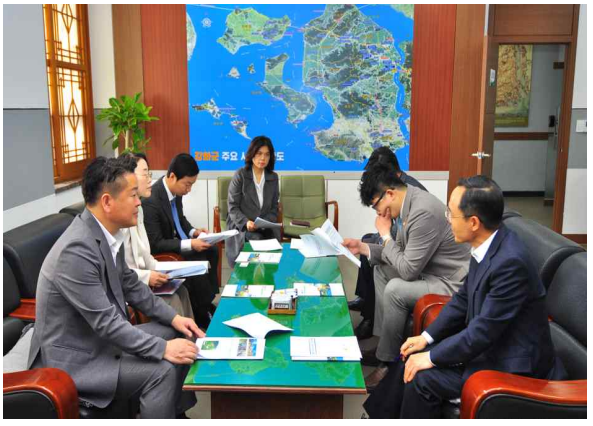
- 일시: 2025.04.16.
- 장소: 강화군미래치유농업센터(강화군) / 강화군의회
- 목적: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농업 콘텐츠 발굴

- 주요내용 :

1) 치유농업센터의 운영 구조 파악
   - 농작물 재배 공간과 체험실, 교육실 등이 연계된 복합형 구조 확인
   - 자연환경을 활용한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방식 조사
   - 지역특산물과 치유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 구성 방안 검토
2) 치유프로그램의 실제 구성 및 운영 방식
   - 고령층·가족단위·치유 필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 농작물 돌보기, 향기·감각 활용 프로그램, 농촌 활동 기반의 체험 과정 분석
   -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확보 과정과 교육 체계 확인
3) 강화군의회의 지원 및 정책적 기반 조사
   - 치유농업 관련 지역 사업 추진 배경 청취
   - 예산 구조와 운영 지원 방식 이해

[그림 5-3]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9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제10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일시: 2025.04.29.
- 장소: 커피하우스 유천(시천동)
- 목적: 치유농업 기반 구축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생산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등
- 주요내용 :

1) 생산 활동과 카페 운영의 연계 구조
 - 농산물 재배, 원재료 가공, 카페 운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 확인
 - 생산 기반이 일자리로 확장되는 과정 검토
2)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적 요소 파악
 - 실내·외 공간 구성에서 정서적 안정 요소 반영 여부 확인
 - 커피·음료 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방식 조사
3) 일자리 창출 가능성 및 운영자 의견 청취
 -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참여 가능성 검토
 - 카페 운영과 연계한 주민 고용 사례 여부 확인
 - 운영자가 경험한 공간 운영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요소 논의

[그림 5-4]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10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제11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일시: 2025.07.25.
- 장소: 검단농협 영농자재센터(대곡동), 로컬프드매장, 친환경캠프(시천동) 주요시설 등
- 목적: 관내 도시농업 현황 파악 및 연계한 치유농업 6차산업 실증모델 자료 수집 등
- 주요내용 :

1) 검단농협 영농자재센터 운영 구조 파악
 -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필수적인 자재 공급 체계 조사
 - 농가·소규모 도시농업 참여자와의 유통 흐름 분석
 - 자재센터의 상담·지원 기능 및 지역 협력 방식 확인

2) 로컬푸드 매장의 유통 구조와 지역 연계
 - 지역 농산물 출하 방식과 판매 구조 확인
 - 소비자 반응 및 지역 내 수요 흐름 파악

3) 친환경캠프의 체험·교육 기능 조사
 - 친환경 농법 기반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확인
 - 주민·학생 대상 교육 방식 및 참여자 특성 조사

[그림 5-5]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11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제12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일시: 2025.09.15.
- 장소: 한국지유농업협회 강원지사, 고은꽃원예치료센터(춘천시)
- 목적: 사회적 고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유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모델 개발, 교육 중심 프로그램 설계 및 실증 분석,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주요내용 :

1) 전문기관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체계 분석
 - 치유농업사와 보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확인
 - 정서·심리 회복을 위한 원예·농업 기반 활동의 단계별 구성 조사
2) 고은꽃원예치료센터의 사례 현장 파악
 - 실내·외 치유공간 구성 방식과 감각·정서 자극 요소 도입 방식 검토
 - 개별 상담·그룹 세션 등 참여자의 특성에 맞춘 운영체계 확인
3) 치유농업과 지역 6차산업 연계 가능성 탐색
 - 농업 생산→교육·체험→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구조 확인
 - 치유 프로그램과 농산물 가공·유통의 결합 가능성 검토
 -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식 분석

[그림 5-6]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12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제13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 일시: 2025.11.06.
- 장소: 신석재단 신록팜샐러드카페(신현동)
- 목적: 인천서구 최초 도시형 스마트팜 운영시설 탐방.
  관내의 스마트농업 관련 현황 파악과 사례 비교시찰을 바탕으로
  도시농업의 중요성과 운영노하우 등에 대한 사례 수집
- 주요내용 :

1) 스마트팜 재배 시스템 및 운영 방식 조사
 - 자동화된 LED 재배·수경재배 시스템 구성 확인
 - 온·습도·영양 관리 등 환경 제어 기술의 실제 적용 방식 파악

2) 카페 운영과 결합된 생산·소비 구조 분석
 - 재배실에서 수확한 채소를 즉시 메뉴로 활용하는 공급 구조 확인
 - 농산물 생산·식음료 서비스·체험 활동이 결합된 운영 방식 분석

3) 도시농업 모델로서의 확장성 검토
 - 학교·복지시설·마을단위 생활권과 연계 가능성 파악
 - 인천 서구 내 다른 시설과의 협력 기반 및 적용 가능 요소 검토

[그림 5-7] 서구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제13차 우수사례 현장방문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2. 현장 방문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의 방향성

□ **이번 현장방문은 도시농업·치유농업·스마트농업 등 여러 운영 형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인천 서구가 향후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운영 요소의 전략적 활용**

- 부산의 도시농업공원은 공공시설 중심의 체계적 관리 방식이 돋보였고, 강화 치유 농업센터는 프로그램 구성의 전문성이 높았다. 검단농협·로컬푸드 매장·친환경캠프는 지역 유통과 체험 운영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방문지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서구는 이들의 개별 장점을 참고하여 지역 정책에 맞게 조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대**

- 춘천의 원예치료기관과 강원지역 사례에서는 전문 인력의 역할 비중이 컸다.
  서구는 치유농업을 확대하려면 단순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각 방문지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지역의 대상자 특성에 맞춰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 **도심 환경에 맞는 안전한 스마트농업 모델 도입**

- 신록팜샐러드카페 방문을 통해 소규모 스마트팜이 도시 속에서 운영되기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제 서구가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도심 환경에서 무리 없이 운영 가능한 스마트농업 도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 서구 대상자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 강화와 춘천 방문을 통해 대상자별 프로그램 설계가 효과적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서구 역시 아동·청소년·노인·소외계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민관 협력 구조의 실효성 강화

- 방문지들이 서로 운영을 공유하거나 연계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통적으로 행정, 농업기술센터, 민간농가 등 여러 주체가 역할을 나누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서구도 이를 참고해, 협력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 현실에 맞는 역할 분담 구조를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사례검토의 함의

국내 여러 지자체의 치유농업·도시농업 운영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단일한 성공 모형이 존재한다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게 다른 요소들을 조합한 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중심의 운영체계, 전문 인력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 생활권 공간을 활용한 참여 모델, 스마트농업을 접목한 생산 중심형 모델 등은 각각 지역 특성에 맞춰 구축된 형태였다.

사례를 종합하면, 치유농업의 발전은 '농장 기반'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복지·유통·스마트기술 등 다른 영역과 연결될 때 확장성을 갖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치유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전문 인력과 대상자 맞춤 설계였으며, 이는 일정 규모의 농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치유농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결국 사례검토는 서구가 앞으로 도시농업·치유농업을 추진할 때, 외부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방식보다 지역 구조에 적합한 기능을 선택하여 새롭게 조합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서구의 도시적 환경, 인구 특성, 농업 기반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표5-1] 현장방문지별 핵심요소

구분	방문지	핵심요소	적용가능성
사전답사	꽃뫼농원	- 도시농업 기반시설의 기초 운영 형태 파악	- 서구 농업기반 현황 진단에 유효 - 기초형 치유농장 모델 참고 가능
제1차·제8차 방문	철마도시농업공원	- 공공 주도형 도시농업공원의 운영체계 - 시민 참여 프로그램 구성 방식 - 시설·현장관리 프로세스	- 공공 중심의 도시농업 운영 모델 설계에 참고 - 서구 도시농업센터 기능 확장 방향 검토
제9차 방문	강화군 미래치유농업센터	- 치유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 사례 - 대상자별 접근 방식 (노인·취약계층 중심) - 농촌 체험,치유 활동 결합 구조	- 서구 치유농업 프로그램 설계 벤치마킹 가능 - 사회적 고립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참고
제10차 방문	커피하우스 유천	- 생활권 치유공간 모델 - 소규모 생산·가공·카페 운영의 연계 방식 - 주민 친화형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방식	- 생활권 기반 치유농업 모델의 가능성 확인 - 지역 소규모 공간 활용성 검토 필요
제11차 방문	검단농협 영농자재센터·로컬푸드매장·친환경캠프	- 유통·판매·교육 공간의 기능적 분리와 협업 사례 - 지역 농업 유통망의 구조적 이해 - 친환경 교육 콘텐츠 운영 방식	- 서구 로컬푸드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활용 가능 - 농가, 소비자 연결 구조 개선 참고
제12차 방문	한국치유농업협회 강원지사·고은꽃원예 치료센터 등	- 전문 치유인력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구조 - 장기적 치유 목적의 교육·상담형 프로그램 사례 - 치유농업의 사회적 가치 및 적용성 확인	-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 강화 근거 확보 - 특수대상 맞춤 치유 프로그램 개발 가능
제13차 방문	신록팜샐러드카페	- 도시형 스마트팜 운영 방식 확인 - 스마트 생산과 카페 운영의 결합 - 청년·고령층 고용 가능성 탐색	- 소규모 스마트농업 도입모델 검토 - 생산, 체험, 판매의 일체형 구조 적용 가능

□ 현장방문의 함의

현장방문은 이론 검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과 기관별 특성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방문지마다 규모와 형태는 달랐지만,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이 명확했고 프로그램이 대상자별로 세분화되어 있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농업, 카페형 치유공간, 로컬푸드 연계 등 도시 환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현장방문은 서구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모델을 설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제6장

결 론

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도시 지역의 심리적 불안과 공동체 약화 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치유농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인천 서구는 도시 구조 안에 농업 기반이 남아 있어 생활권 중심의 치유농업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본 연구는 도시농업을 단순 체험이 아닌 정서 회복과 공동체 재생을 이끄는 교육·치유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지역에 맞는 단계적 정책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도시형 치유농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방향임.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농업·치유농업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정책 변화와 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2026년 이후 서구형 모델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 성격을 포함함.

○ 도시농업의 교육·치유 기능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치유농업 모델과 6차 산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구에 적합한 제도·지원체계를 도출함.

○ 치유농업·도시농업 관련 법령, 정부 계획, 지자체 조례,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해 정책 흐름과 제도 기반을 파악함.

○ 춘천·강화·부산 등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비교하여 서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주요 치유농장 및 도시농업 거점(강화·춘천·부산·인천 등)을 실사하고 운영 방식, 프로그램 구성, 공간 활용 방식을 기록·분석함.

○ 연구회 활동기록, 회의자료, 조례안 등을 검토하여 서구의 현황과 과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정책 방향을 제안함.

□ 이론적 논의

○ 도시농업·치유농업·사회적농업은 개별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시 환경 속에서 사람의 정서와 관계, 지역의 사회적 회복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이 연구 전반에서 확인되었다.
즉, 세 영역은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인간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되는 과정 전체를 설명하는 연결 구조를 갖는다.

○ 도시농업은 공간과 지역 생태의 회복에 기여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치유농업은 이 공간 안에서 개인의 정서적 균형과 내면 회복을 이끌어내는 작동 기제를 형성한다.
이는 농업활동이 단순 경험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매개가 됨을 보여준다.

○ 치유농업에서 확인된 개인의 정서 회복은 관계 회복과 사회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농업이 강조하는 돌봄·교육·고용의 기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따라서 농업을 매개로 한 회복 과정은 개인 → 관계 → 공동체로 확장되는 단계적 구조를 갖는다.

○ 현장방문 사례에서도 도시농업이 생산, 교육, 치유가 뒤섞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농업이 단일 목적이 아니라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례는 세 개념의 통합적 해석이 단순이론이 아니라 현실 운영구조에서 이미 나타나는 흐름임을 보여준다.

○ 결국 본 연구가 확인한 이론적 함의는 농업을 ‘생산→치유→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하는 기존 이해를 넘어서, 도시라는 생활권 안에서 농업이 개인의 회복, 공동체 관계 재구성, 지역의 순환경제 형성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도시형 치유농업 및 사회적농업 정책을 설계할 때,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구조적 연결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 인천광역시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는 2023년부터 치유농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농장 연계 등 치유농업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음. 치유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도시농업과 복지·건강 분야 협력도 확대되고 있음.

○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기초과정)은 108시간으로 구성되어, 치유농장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2023). 치유농업 자원 이해, 프로그램 개발, 시설 운영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예비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둠.

○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공공기관·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텃밭·허브 활용 원예활동을 기반으로 한 회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참여자 만족도 조사와 전·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고, 대상자 맞춤형 운영 방식으로 확장 가능성을 확인함.

○ 시민 대상 치유농업 교육은 상·하반기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 중심 과정 도입으로 참여율을 높였음. 교육 종료 후 역량 평가를 통해 향후 치유농업 전문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대상 전문교육은 별도 체계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기획·운영·안전관리 등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함. 운영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치유농업 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사례 공유 체계를 활성화함.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유 기반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복지·보건·고용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함. 이를 통해 일자리 정책, 사회복지 정책과 연동된 치유농업 모델을 실험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돌봄 기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국내 치유농업 사례 분석

○ 사례 비교분석

서울, 강원, 제주의 치유농업은 모두 농업을 통해 정서 회복을 돕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전개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서울은 도시 환경을 전제로 한 치유농업 모델이다. 농업기술센터가 중심 거점 역할을 하면서 치유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병원・재활시설・학교・복지기관 등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보급・협업형 치유농장을 촘촘히 확장해 왔다.
시민이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산시키고, 부부 관계 회복, 직무 스트레스 완화, 일상 만족도 향상, 소상공인 심리 회복 등 대상과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치유예술제를 통해 전시, 공연, 정원 체험을 결합한 행사도 열면서 치유농업을 문화행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넓은 농촌 공간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활권 밀착형 치유농업을 구축해 왔다. 도내 여러 시・군에 치유마을과 치유농장을 지정하고, 농촌교육농장과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우수사례 견학지로 방문했던 춘천 치유농장은 취약계층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예・생태 교육형 농장이 있는가 하면, 유기농카페・파머스가든처럼 카페・베이커리와 연계된 6차산업형 공간도 함께 자리한다. 주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농장과 마을이 곧 치유공간이 되는 구조이며, 도 차원에서 인력 양성, 권역별 협의체,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산된 거점, 공적 관리체계라는 특징이 뚜렷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경관과 농촌관광 자원을 결합한 복합형 치유농업으로 구분된다. 숲, 감귤밭, 곤충, 체험농장을 하나의 코스로 엮어 관광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하도록 구성한 사례가 많다. 덕천곤충 영농조합법인은 장수풍뎅이・사슴벌레 등 곤충을 정서 치유 자원으로 활용하여 관찰, 만져보기, 돌보기, 가공 체험까지 이어지는 농촌융복합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레숲 치유농장은 농촌교육농장에서 출발해 숲 체험, 감귤밭 활동, 자연미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교육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함께 수용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곤충산업·숲치유·농촌관광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고 치유농업사를 적극 양성하면서, 관광과 연계된 치유농업이라는 제주 고유의 유형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 세 지역을 함께 놓고 보면, 서울은 도시 기반 정서관리형, 강원은 생활권 공동체형, 제주는 자연·관광 융복합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운영 주체는 서울이 공공기관 중심, 강원은 도·시군·농장주가 함께하는 분산형, 제주는 개별 농장과 관광자원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형에 가깝다.
프로그램 역시 서울은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세밀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강원은 교육·체험·돌봄이 농촌 일상과 섞여 있으며, 제주는 체험·관광·가공이 한 묶음으로 운영된다.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지역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치유농업을 생활 속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분명하다.

○ 국내 치유농업 사례 시사점

사례를 통해 먼저 확인되는 점은, 치유농업의 성패가 지역 자원과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은 농지가 부족한 대신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학교의 유휴공간을 치유농장으로 변환해 공간 문제를 풀어냈다.
강원과 제주는 넓은 농지, 숲, 관광지를 살려 주민과 방문객이 동시에 이용하는 치유공간으로 확장했다. 같은 치유농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설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참여 대상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서울의 소방공무원·소상공인·부부 대상 프로그램, 강원의 취약계층·학생 대상 원예치유, 제주의 아동·청소년 대상 곤충 치유는 모두 참여자의 상황과 필요를 전제로 디자인된 사례다.

동일한 농작업이라도 청소년에게는 자기효능감과 진로 탐색, 노인에게는 인지 기능 유지, 직장인에게는 스트레스 완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며, 이에 따라 활동의 강도와 내용이 달라진다. 치유농업이 향후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맞춤형 설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준이 필요하다.

인력과 조직의 역할도 공통된 핵심 요소로 나타난다.
서울은 농업기술센터와 치유농업사가 프로그램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강원은 치유농업사와 시설운영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면서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현장을 관리한다. 제주는 치유농업사를 대규모로 배출하며 현장 운영을 이끌고 있다. 치유농업은 단순 체험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자의 정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소모될 위험이 크다.

다른 정책 영역과의 결합 방식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서울의 치유예술제는 치유농업과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경험하게 하고, 강원의 치유마을은 농촌교육·지역축제·관광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제주의 곤충·숲·관광 프로그램은 치유와 소비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경제와 이미지 제고에 함께 기여하고 있다. 치유농업이 복지·보건·문화·관광·교육 사업과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넓히느냐에 따라, 단순한 체험사업을 넘어 지역 단위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갈린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와 효과평가의 필요성이 공통 과제로 드러난다. 지자체별로 치유농장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질과 안전 수준에는 여전히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에서 예산 지원과 교육을 통해 일정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치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 치유농업을 공공재이자 정책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 운영자 자격, 시설 안전, 참여자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검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사례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 적용 가능한 정책적 제언

치유농업은 지역마다 환경과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는 틀이라는 점을 먼저 전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도시 지역은 서울 사례처럼 공공기관이나 학교, 복지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생활권 안에서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꾸리는 방향이 적합하다.
반면 농촌과 산촌은 강원처럼 마을 단위 농장과 농촌교육농장을 기반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상형 치유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관광 요소가 큰 지역은 제주의 경험을 참고해 치유 프로그램을 관광 코스나 체험상품과 결합하여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이 마련되면, 세부 설계는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참여 집단의 특성이 프로그램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령대와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층, 청소년, 직장인, 장애인·돌봄 대상 등 주요 그룹별로 적합한 활동 강도와 회기 수, 안전 기준, 기대효과를 정리한 기준안이 마련되면 현장의 설계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 인력 체계 역시 지금보다 폭넓게 재구성해야 한다.
치유농업사 중심의 기존 구조에 더해 프로그램 기획자, 현장 운영 보조진, 지역 코디네이터, 평가 담당자 등 역할을 세분화하고, 심리·상담·농업기술·프로그램 디자인·위기 대응을 아우르는 교육과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품질 관리 체계는 인증과 평가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장을 공공형 치유농장으로 인증하고, 참여자 구성, 안전관리, 만족도, 정서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를 만들면 예산 지원과 품질 관리가 함께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치유농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전후의 심리·정서 지표 변화, 재참여율, 관계망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꾸준히 수집하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축적이 이루어질 때, 치유농업은 단순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넘어 공공서비스로 자리잡을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2.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치유농업이 지역사회 정서 회복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공공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에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 품질관리, 지역 생태계 확장까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구형 치유농업 행정연계 프로세스

치유농업을 안정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의 유휴공간을 생활권 중심의 치유 거점으로 전환하는 등 공간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 재배 공간을 넘어 주민이 편안함을 느끼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다음 단계는 협력 구조의 구축이다. 지방정부, 전문가, 지역 주민이 역할을 분담해 운영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현장 적합성이 높아진다. 이후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지원 단계에서는 목적에 맞는 활동 구성이 필요하며,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 실습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장을 인증하고 품질을 점검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면 치유농업의 공공성 확보와 정책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절차는 치유농업을 단발성 체험이 아니라 지역의 정서 회복과 공동체 강화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그림 6-1] 서구형 치유농업 행정연계 프로세스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에듀팜 기반 전략

에듀팜 모델은 치유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치유농업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을 제공한다. 정서 회복을 위한 치유 모듈로 주민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운영자를 위한 교육 모듈은 원예기술·치유이론·응급대응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단계적으로 갖추도록 돕는다. 여기에 마을·기관과 연계한 현장 실습이 더해지면, 교육에서 배운 역량이 지역으로 되돌아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단계형 커리큘럼은 기초·심화 교육과 40시간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자 전문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치유농업이 단순 체험을 넘어 지역의 정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적 서비스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6-2] 에듀팜 설명자료

[표6-1] 에듀팜 커리큘럼

단계	기간 및 형식	핵심 내용	평가 및 이수
기초과정	8주 · 주1회/2h	도시농업 기초, 원예치유 이해, 기본 안전	출석 80%↑, 퀴즈
치유농업	8주 · 주1회/2h	프로그램 설계, 집단 퍼실리테이션, 위험대응	프로그램 설계 포트폴리오 1건
사회적농업	40시간	치유농장 실습, 응급/사후관리, 사례기록	현장 체크리스트

주요 지표 : 참여율·재참여율·중도이탈률·프로그램만족도

○ 치유농업사 양성 단계 프로세스

치유농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 참여 단계에서 출발해 현장 실습, 운영 경험, 전문 활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구조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도시농업의 기초와 원예치유 개념, 안전관리 등 기본 교육을 통해 치유농업의 전반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후 실제 프로그램에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며 현장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러한 실습 중심 참여는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흐름과 참여자 특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기초 역량을 갖춘 인력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평가를 통과하면 운영 책임자나 퍼실리테이터로 성장하여 직접 치유 세션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의 전문성은 한층 강화되며, 프로그램 품질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최종 단계에서는 지역 사회적 농장이나 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강사나 운영자 풀로 활동 범위가 확장된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이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 사회적 조직과의 협력 기반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표6-2] 치유농업사 양성 단계

단계	핵심 내용	설명
1단계 (교육 참여)	치유농업 기본 교육 이수	도시농업 기초, 원예치유 이해, 기본 안전
2단계 (보조활동 참여)	보조 진행자로 참여	실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실습 중심으로 배우기
3단계 (운영자 성장)	운영 책임자 또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	일정 교육과 평가를 통과하면 직접 세션을 설계·진행
4단계 (전문인력 및 창업 연계)	강사·운영자 등록 및 사회적농업 조직 참여	지역 사회적농장, 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일자리·창업으로 확대

○ 6차산업 연계

치유농업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체험·관광·브랜드를 아우르는 6차산업 연계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기반의 생산 활동에서 출발해 체험과 교육, 가공 상품 개발, 관광 프로그램, 지역 브랜드 형성까지 확장되는 순환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면 치유농업은 지역 농업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경제 회복에도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행정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공모사업과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인증제와 안전 기준을 정비하여 현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의 운영 경험과 행정 데이터가 결합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농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치유농업은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에서도 큰 가능성을 가진다. 운영 주체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조직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순환 경제의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으며, 돌봄, 복지, 교육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공동체 회복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치유농업이 단순 체험이나 일시적 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치유농업이 6차산업과 연계되면, 농업·치유·관광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내 자립적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행정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 구조를 뒷받침할 때, 치유농업은 지역생활권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이자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림 6-3] 6차산업연계 설명

○ 5년 추진 로드맵 제안

치유농업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입기, 확대기, 정착기 순서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도입기인 2025~2027년에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을 마련한다.
치유농장을 우선 지정하고, 1기 EduFarm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초기 인력을 확보한다. 동시에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공간을 치유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행 기반을 다지는 단계다.

2027~2028년 확대기에는 산업적 확장에 중점을 둔다. 치유농장 수를 늘리고,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참여도를 높인다. 또한 허브티·발효채소·원예키트 등 가공·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내 6차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기업 ESG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모색한다. 이 시기는 치유농업이 단순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결합하는 전환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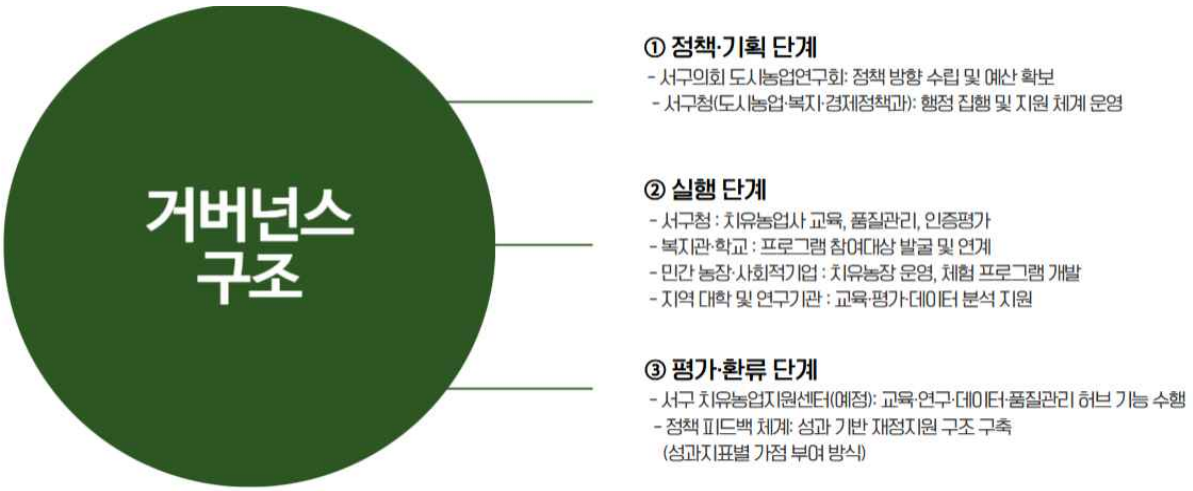
2029년 이후 정착기에는 제도화와 장기 운영 구조 확립이 핵심 과제이다. 치유농업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 품질관리, 컨설팅 기능을 공공적으로 묶어내고, 치유농장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 기준과 안전 기준을 체계화한다. 더불어 치유관광 루트 운영 등 도시관광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사회적농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완성한다.
이러한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치유농업은 단기 프로젝트를 넘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공공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으며, 교육·복지·관광을 잇는 지역 자원순환 구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림 6-4] 로드맵 설명

○ 거버넌스 구조

치유농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기획 단계에서는 구의회와 관련 연구회가 정책 방향을 잡고, 행정 조직이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행정, 복지기관, 학교, 민간 농장,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 대학이 역할을 분담해 교육·프로그램 운영·대상자 연계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환류 단계에서는 치유농업지원센터가 교육·데이터·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과 예산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치유농업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림 6-5] 거버넌스 구조 설명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치유농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민간·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제도 정비와 예산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연구·품질관리를 통합한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장·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복지·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확대하면, 치유농업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경제 순환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최인규(2023). 「치유농업 정책플랫폼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인경 외(2024).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분석」
김정은 외(2024). 「농장주의 사회서비스 연계 의향 분석을 통한 치유농업 확산 연구」
박정훈 외(2024).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의 융합 가능성 연구」
정순진 외(2022). 「아동·청소년·성인의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치유농업 효과 검증」.
농촌진흥청(2023). 「대학생 스트레스 '치유농업'으로 날리다」.
농촌진흥청(202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
농림축산식품부. 「치유농업 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 육성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종합대책」.
농림축산식품부(2023).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2023~2025)」.
농림축산식품부(2023).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시행계획(2023~2025)」.
농촌진흥청(202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년 치유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시행계획」.
농촌진흥청(2023). 「치유농업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관련 자료.
전라북도농업기술원(2024). 「2025년 청년 참여형 치유농업 확산사업 기본계획(안)」.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023). 「2023년 협업형 치유농장 보급사업 운영계획」.
인천광역시(2024). 「2024년 도심형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공시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사회적농업 확산 지원사업 시행계획(2023~2025)」.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농촌진흥청(2024). 「사회적농장 품질인증 시범사업 계획」.
강원특별자치도(2024). 「2023~2024년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025). 「2025년 도시형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사업 기본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2024). 「2024~2025년 사회적농업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사회적농업 관련).
「농촌진흥법」(사회적농업 관련 조항 언급).

인천광역시(2015, 2022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2023. 9. 27 제정).
「인천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2023. 3.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2025. 7.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3). 치유농업·사회적농업 관련 통계 및 정책자료.
농촌진흥청(2022, 2023). 치유농업 유형 분류 및 효과 검증 관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사회적농업 정책 및 유형 분석 관련 자료.
강원도농업기술원 / 강원농업기술원(2024). 치유농업·농촌교육농장 관련 자료.
인천광역시청(연도별). 치유농업 교육·프로그램 사진 및 사업자료.

참고문헌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main.html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lis.go.kr/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홈페이지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council/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s://agro.seoul.go.kr/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s://agri.jeju.go.kr/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ares.gangwon.kr/gwares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index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 https://www.nongsaro.go.kr/portal/portalMain.ps?menuId=PS00001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s://www.chuncheon.go.kr/agriculture/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https://mediahub.seoul.go.kr/news/newsMain.do
농촌진흥청 블로그 농다락 https://blog.naver.com/rda2448

'청년농+농촌융복합' 모델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스포츠서울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60362?ref=naver

인천 서구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 이어가
시민뉴스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1714665801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강원 춘천시 치유농업 우수사례 현장방문
기호일보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485

농진청, 소상공인 마음 회복 치유농업 첫 시범운영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2_0003372726

'도시형 치유농업센터' 전국으로 확대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702500584

서울시, '치유농업프로그램 참여' 사회복지단체 110곳 선착순 모집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04

참고문헌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서울시농업기술센터서 '치유농업예술제' 개최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018000888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활용한 고용복지 서비스 지원
오늘경제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800

인천시, '2025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추진
메트로서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214500139

인천시, 치유농업 고도화 작업 착수
스카이데일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35919

인천시, 치유농업 이끌어갈 인재 20명 양성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828

김남원 인천 서구의원, '치유농업' 조례 발의
시민일보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1231330335

옥수수밭에서 마음 치유…강원도 치유농업 주목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5124270

['정신건강' 말 못하는 안녕하지 못한 우리] 6. 강원도 치유농업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3016

[제주소식]도 치유농업시설 운영 교육생 모집 등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1_0003094250

제주도, 치유농업으로 관광 위기 극복 나선다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4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